

Style

조선일보

MARCH 2022
vol.233



Van Cleef & Arpels

Haute Joaillerie, place Vendôme since 1906





세이셸의 외딴 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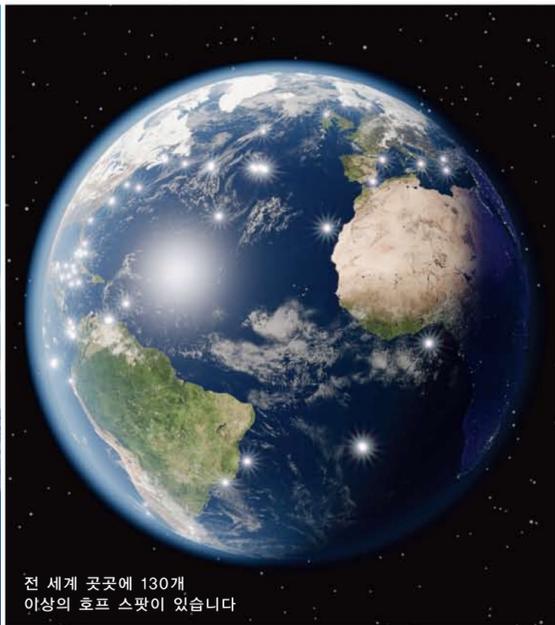
포르투갈 아조레스 제도



미국 플로리다 걸프 해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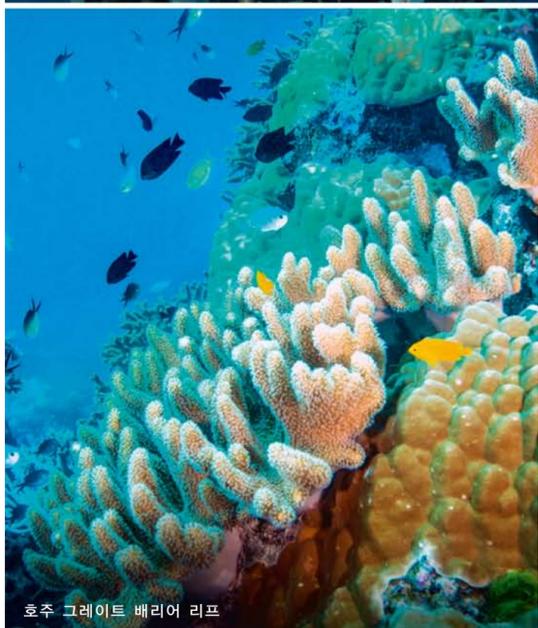
코스타리카 코코스 섬을 탐험하는 실비아 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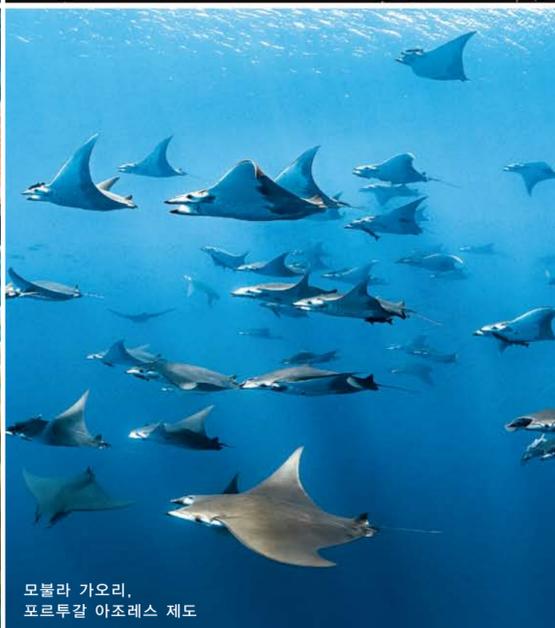
전 세계 곳곳에 130개 이상의 호프 스팟이 있습니다



실비아 얼과 자원봉사자들, 세이셸의 외딴 섬



호주 그레이트 배리어 리프



모블라 가오리, 포르투갈 아조레스 제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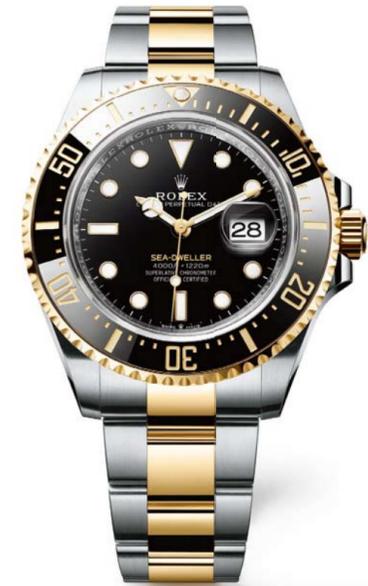


바다사자, 에라도르 갈라파고스 제도

함께 지켜갑니다

이제 우리는 지구의 모든 바다와 대양에서 희망을 찾을 수 있습니다. 현지 공동체들도 그들의 생활터전인 바다 생태계의 풍요로움과 다양성을 위해 해양 보호 구역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탐험가이자 해양생물학자인 실비아 얼은 이들과 소중한 경험을 공유하며, 자신이 설립한 환경보호단체 미션 블루(Mission Blue)를 통해 현지 공동체의 목표 달성을 돕고 있습니다. 이들은 함께 130개 이상의 호프 스팟(Hope Spot)을 만들었으며, 그 숫자는 계속 늘고 있습니다. 다음 세대에 희망의 메시지를 전한다는 비전. 롤렉스는 이 비전과 함께 변함없는 지구를 위한 활동을 자랑스럽게 여기며, 앞으로도 필요하다면 변함없이 함께할 것입니다.

#Perpetual #변함없는탁월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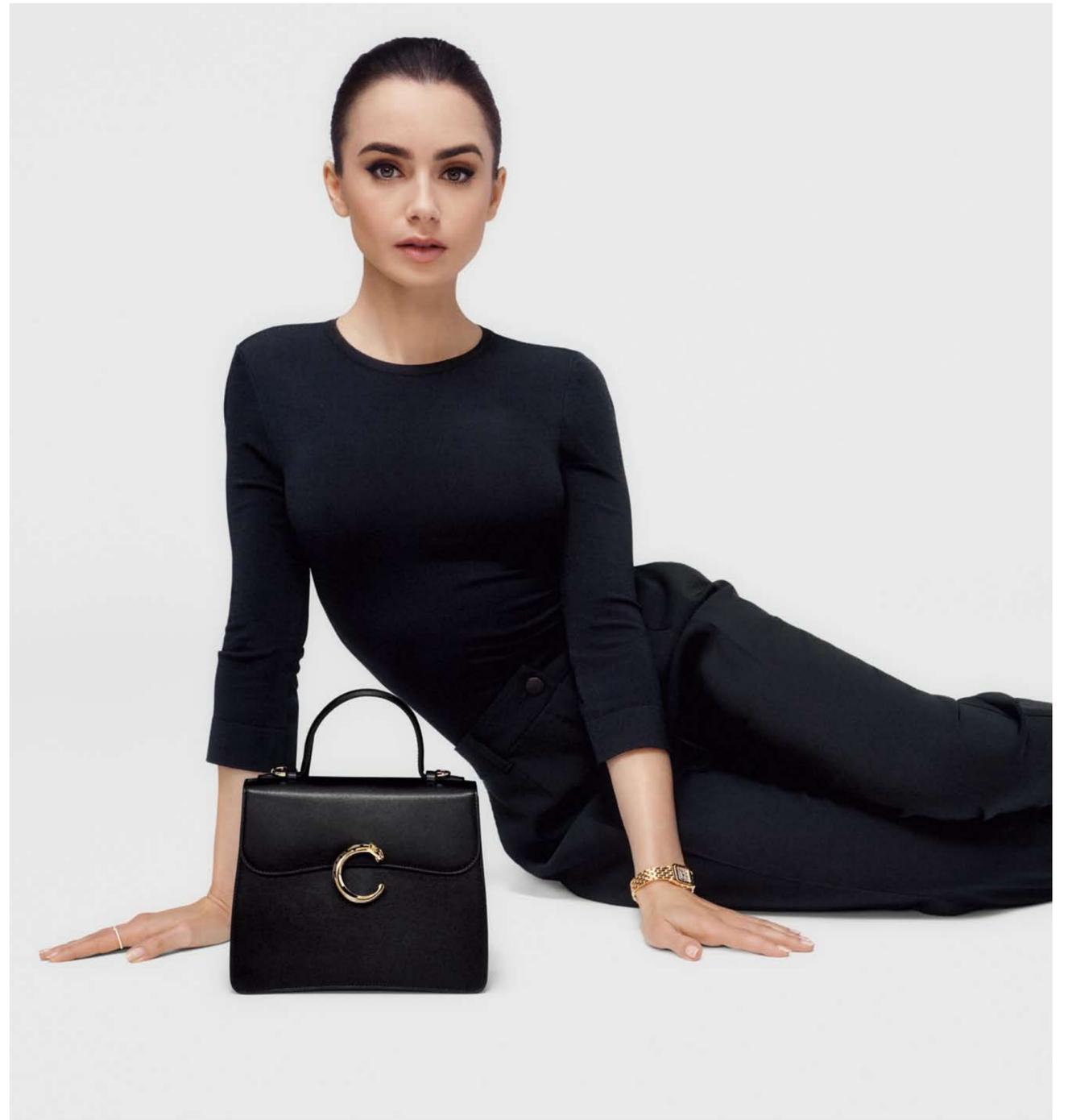


OYSTER PERPETUAL SEA-DWELLER



롤렉스는 2030년까지 바다의 30%를 보호하려는 미션 블루의 목표를 후원합니다





PANTHÈRE
DE
Cartier

문의. 02 3480 0104



DIOR

GEM DIOR COLLECTION
White gold, stainless steel, diamonds and mother of pearl.





18 21



30



자연에서 영감을 얻어 예술적이고 생동감 넘치는 주얼리로 탄생하는 반클리프 아펠. 특히 두 마리 나비를 형상화해 살아 움직이는 듯한 감성을 대담한 바티콜로이 비트윈 더 핑거 링은 40여 년간 이어온 반클리프 아펠의 창의적인 정신을 반영한다. 우아한 내면의 사랑을 연인들, 강가의 반딧불이와 화끈한 두 사람이 주고받는 사랑의 속삭임을 전한다. 표지 속 제품은 옐로 골드 소재에 풍성한 다이아몬드와 반클리프 아펠 스톤의 자광인 하얏빛이 돋보이는 터퀴이즈를 매치해 사랑의 색감과 따뜻한 봄의 무드를 담았다. 2천8백만원대, 문의 1669-1906



12

- 18 **미래형 미술관을 꿈꾼다** 지난 1월 초, 울산 북정동에 새롭게 들어선 울산시립미술관은 관람객들에게 보다 가까이 다가가면서 참여적 경험을 선사하는 미디어아트 플랫폼을 지향한다. 미술관이 아니라 박물관에 걸맞은 5개의 개관전이 펼쳐지고 있는 현장에 다녀왔다.
- 20 **EXHIBITION IN FOCUS** 이른 봄이면 막을 내릴 거장의 전시를 소개한다. 팝아트의 구루로 그동안 국내에서 단독전으로 접할 기회가 흔치 않았던 로이 리히텐슈타인의 전시, 그리고 자신만의 사진 미학으로 탁월한 명성을 자랑하는 네덜란드 작가 어린 올라프의 대규모 회고전이다.
- 21 **A JOURNEY BEYOND LIMITS** 단색화 거장 허중현(1935~)의 60년 화업을 관통하는 작업 세계를 접할 수 있는 개관초이 국제갤러리 서울점에서 지난 2월 15일 막을 올렸다. 올해 베니스 비엔날레 기간에 맞춰 현지에서 개최될 예정인 그의 개관초에 앞서 열리는 작은 회고전 같은 전시지만, 코로나19로 얼룩진 시기에 작업한 신작까지 광범위 구상을 앞둔 노장의 예술 여정이 여전히 활기 있는 현재 진행형을 보여준다. 오는 3월 13일까지.
- 22 **SIMPLE ELEGANCE** 모던한 디자인과 다이아몬드의 우아한 매력으로 시선을 사로잡는 뱅클.
- 23 **HIGH TIME** 아름다움뿐 아니라 하이엔드 기술력까지 갖춘 여성들의 욕망을 완벽하게 충족시킬 하이 컴플리케이션 워치.
- 24 **GRAND CIRCLE** 손목 위 풍경, 남녀 모두의 워시 리스트 이상적인 존재감을 자닌 41 & 42mm 워치 컬렉션.
- 25 **TIME FLOWS** 기계식 시계 본연의 정밀함과 미학적 가치까지 겸비한 오메가 글로브마스터 에뉴얼 캘린더 컬렉션.
- 26 **2022 S/S TREND REPORT** 온갖 놀라운 상상력과 과감한 시도로 패션해방구라 불리던 Y2K 시대의 패션이 돌아왔다. 반대로 패션에 대한 갈증을 느끼는 진지(Generation Z) 세대가 소셜 미디어를 통해 가장 가까운 과거이자 가장 접근하고 화려했던 2000년대 패션을 소환하기 시작한 것. 패션에 대한 자유를 만끽하게 해주는 10가지 패션 트렌드.
- 28 **SPRING ROMANCE** 오랜 각의의 시간을 통과하며 겪은 현실과 디지털 생활의 융합을 표현한 올해의 컬러 배리퍼디. 이 싹튼 라벤더 컬러 아이템을 통해 맞이하는 희망찬 새봄.
- 29 **TIE A SCARF** 우아한 뉴트로 바이브를 완성하는 네 가지 스카프 연출법.
- 30 **A FRESH START** 간절함과 함께 희망을 품어보는 2022년 첫 시즌을 여는 뉴욕.
- 38 **URBAN LUXURY** 최상의 소재와 섬세한 장인 정신으로 빛아낸 본질적인 우아함. 자연스러운 품위와 세련된 라이프스타일을 추구하는 이들을 위한 브루넬로 쿠치넬리의 뉴 스프링 컬렉션.
- 40 **FEEL SO GOOD** 욕실의 품격을 한층 높이는 럭셔리 뷰티템.
- 41 **BEAUTIFUL TECHNOLOGY** 접이셔도 간편하게 지속적이고 효과적인 관리를 도와줄 뷰티 디바이스 하나로 피부 불균형을 효과적으로 바로잡을 것. 뛰어난 탄력을 되살려 매끈하고 건강한 피부 관리를 도와줄 홈케어 뷰티 디바이스 실콘 페이스타이트 3.0이 그 해답이다.
- 42 **EDITOR'S PICK** 환절기 피부 고민은 덜어주고, 싱그러운 에너지를 채워주는 이달의 뷰티템.

Style 조선일보 Issue.233 March 2022

대표 | 방정오 cbang@chosun.com
 편집장 | 김유미 ymkim@chosun.com 피처 디렉터 | 고성연 amazingk@chosun.com
 패션·뷰티 디렉터 | 장와은 rarara@chosun.com 에디터 | 성정민 sjm@chosun.com
 이주이 juji.lee@chosun.com 아트 디렉터 | 이은옥 okida0820@naver.com 교열 | 이정현
 광고·마케팅 | 박영하 yhpark@chosun.com 김준석 adjoons@chosun.com
 이경희 ih5567@chosun.com 유우희 whyoo@chosun.com 제작 김현기 hgkim@chosun.com
 재무 관선비 분해, 재민 리은 인쇄 | 타라티피에스 기사 문의 02-793-5330 광고 문의 02-793-5339
 발행처 (주)스타일조선 서울시 용산구 서빙고로 413 현대 하이베리온 비즈나스센터 110호

매일 **첫째 주 수요일에 발행**하며 서울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목동, 여의도, 한남동, 동부이촌동, 평창동, 성북동, 경기도 성남 분당구, 부산 해운대구, 수영구, 동래구, 남구, 연제구, 대구 수성구의 조선일보 구독자에게 배달됩니다.
 ※ 3·4·9·10월은 첫째, 셋째 주 수요일에 각주로 두 번 발행됩니다.
 ※ 수요일이 공휴일인 경우 발행일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스페셜 에디션은 임의로 발행됩니다.



stylechosun.com

〈스타일 조선일보〉 홈페이지는 동성만 선물 이벤트, 실질적인 정보의 럭셔리 브랜드 갤러리, 품격 있는 라이프스타일을 제안하고 지원하는 다양한 콘텐츠를 준비하고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또 과월호를 언제 어디서나 온라인으로 구독할 수 있는 'E-magazine'이 여러분과 〈스타일 조선일보〉를 더욱 가깝게 만들어드립니다. 역사적 그 이상의 감각과 품격이 함께하는 〈스타일 조선일보〉 홈페이지, 지금 바로 방문해주세요. stylechosun.com

FENDI.COM



FENDI

ROMA



향기의 재구성

향수만큼이나 우아하고 독보적인 향을 선보이는 펜할리곤스 홈 컬렉션 클래식 캔들 라인에 3가지 라인업이 추가됐다. 은방울꽃을 중심으로 한 우디 베이스 계열의 실론 피코 향과 타카산 장미의 풍성하고 아늑적인 향을 느낄 수 있는 쿨간 로즈, 라즈베리와 담쟁이 정글 그리고 머스크 향이 어우러져 매혹적인 향을 지니는 로아노크 아이비가 그 주인공. 새로운 향기로 공간에 신선한 에너지를 더해보는 것은 어떨는지. 200g 11만2천5백원. 문의 080-363-5454



사랑의 순간들

에스티 로더에서 살리는 봄 향을 가득 담은 새로운 향수 NEW 뷰티풀 매그놀리아 인텐스를 출시한다. 사랑의 순간과 그에 대한 서사에서 생기는 감정의 소용돌이를 포착한 향으로 강렬한 시프레 플로럴 계열의 향을 가득 담았다. 여예 만다린 오일, 바이올렛 리프 앰슬루트, 매혹적인 느낌의 카다멈 오일까지. 이 세 원료의 조합은 이른 아침에 피아는 목련의 상쾌한 향기와 결합되어 그동안 플로럴 향의 퍼퓸에서 느낄 수 없었던 묘한 매력을 전한다. 50ML 13만2천원. 문의 02-6971-3212



주얼리는 우리 몸에 착용함과 동시에 디자인적인 아름다움뿐 아니라 상징적으로도 많은 의미를 준다. 그래서 '행운', '행복', '사랑' 등과 같은 의미를 담은 주얼리를 선택할수록 기쁨을 더한다. 1968년 행운을 상징하는 네 잎 클로버에서 영감을 받아 탄생한 반클리프 아펠의 일함브라 주얼리 컬렉션이 많은 사랑을 받는 이유다. 특히 소매가 짧아지는 날씨에 무려 5개의 네 잎 클로버 모티브가 들어간 반클리프 아펠의 일함브라 브레이슬릿은 목에 포인트를 주며 고급스러움을 더한다. 옐로 골드 에 화이트 메타오브릴 모티브로 어느 룩에나 잘 어울리며, 네 잎 클로버 가장자리에 자리한 섬세한 골드 비즈 장식이 우아하고 여성스러움을 배가한다. 가격 5백만원대. 문의 1668-1906

INSIGHT

편집부가 엄선한, 국내 및 해외에서 각광받는 이달의 최신 트렌드 & 주목할 만한 소식들.

무슈 디올이 사랑한 테마와 쿠티르로부터 영감을 얻는 디올의 워치 메이킹은 독보적이다. 언제나 독창적이고 대담한 디자인과 컬러, 다양한 소재 등에 뛰어난 제작 노하우를 결합해 진귀한 타인피스를 선보이기 때문. 빅투아르 드 카스텔란의 새로운 컬렉션인 젬 디올(GEM DIOR)은 실루엣부터 유니크한 디자인을 선보인다. 특히 무슈 디올이 사랑한 컬러풀한 파브릭 건본에서 영감을 받은 다이얼의 컬러 스톤이 눈길을 사로잡는다. 다이아몬드를 정교하게 세팅한 비대칭 케이스 디자인과 6개의 다이아몬드로 이뤄진 언벨런스 링크를 포인트로 넣은 스트랩까지, 나만의 유니크한 우아함을 즐기고 싶다면 단연 디올 워치다. 5천1백만원대. 문의 02-3480-0104



우아한 카리스마



FOUR RING BAGS

미치브러를 착용한 듯, 플랩 부분에 손을 끼워 넣어 연출할 수 있어 매력적인 일렉산더 맥퀸의 포 링 백이 한층 모던한 모습으로 돌아왔다. 텍스처가 매끈한 숄더가죽으로 재즈해 고급스러운 인상은 유지하면서, 메탈 손잡이 부분의 장식을 열네 개 군다지기 없이 간결하며 시크한 매력을 강조한다. 블랙과 아이보리, 텐 등 시그니처 컬러 구성에 코럴 컬러를 추가한 싱그러운 라인업으로 선보인다. 2백15만원. 문의 02-6905-3472





클래식 케이블 니트 22만5천원
프라이제.



스트로, 그로그래 소재로
재조합 리블리한 리본 장식의
헤드 밴드 가격 미정 사넬.



플랫폼 스타일의 화이트 카프 레더
로퍼 90만원대 토즈.



다이아몬드를
세팅한 포제션
오픈 후프 이어링
5만65만원 피아제.

스타일링: 조지오 아르마니



로즈 골드 베를리 콜로버 펜던트 6백만원대
반클리프 아펠.

Selection

Welcome Back! 사랑스러운 프레피 룩의 정석, 1990년대 영화 <클루리스>
패션 스타일. photographed by choi min young, jeong jin young



탱크 루이
까르띠에 워치
1조원1천대
까르띠에.



컬링 디테일을 더한 램프스킨가비 콤팩트 3단 지갑 92만원 생로랑.



다미에 아쥬르 데님 A라인 미-스커트 가격 미정 루이 비통.



감각적인 네이비 톤을
입힌 소가죽 라 프리마 백,
20X16cm, 1백90만원대
조르지오 아르마니.



보이우 화이트
헤어밴드 가격 미정
루이 비통.



스웨이드 고티드 스킨소재의 버블 장식
모카신 1백40만원대 에르메스.



구찌 홀스빗 1955
스몰 톱 핸드백,
25X24cm, 3백15만원
구찌.



코튼 캐주얼 트러쉬-루트-레드 27만2천원 토즈.



블루 디올 오블리브
자카드 새들 아이폰
케이스 가격 미정
디올.



밀러 폰 크로스
보디 백,
17.5X10.5cm,
37만원 토리버치.

프레드 페리 02-517-4628 사넬 080-200-2709 피아제 02-3479-1802 반클리프 아펠 1668-1906 토즈 02-3438-6002
까르띠에 1566-7277 생 로랑 02-525-2250 루이 비통 02-3432-1854 조르지오 아르마니 02-310-1704 구찌 02-3452-1921
펜디 02-514-0652 보스 02-515-4088 에르메스 02-544-7722 디올 02-3480-0104 토리버치 02-3438-6214



FABIANA FILIPPI



스케이트보드 모양의 플렉시글라스 생로랑 카링 38만원 생로랑.

헬링턴 스타일 프레임 브라운 선글라스 가격 미정 디올 몬스터.

디올 그레이 테크니컬 마우 테디 블루중 가격 미정 디올 맨.

토스 마그네틱 자수 장식의 라빈 울양 코를 소재 활용 40만원대 토스.

멜로 팔레테스타™ 지퍼 카드 케이스 55만원 에르메네제노.

카키 레디 드레스 벨트 13만9천원 폴로 말프로렌.

MBU와 결합해 스펀지는 차터 백백 인 어미이드 시그니처 캔버스 백백. 30X40cm, 68만원 코치.

카프 스킨 소재로 제작한 브라운 로퍼 1백40만원대 에르메스.

총 0.18캐럿의 브릴리언트 컷 다이아몬드 20개를 세팅한 자스트 앵글루 브라이슬릿 5백만원대 까르띠에.

일티플라노 워치 2천40만원 피아제.

핀과 울머 가죽 벨 케이스 1백 7천원 구찌.

Selection

자연스럽고 멋스럽게 즐기는 뉴아이비 클럽 스타일.
photographed by choi min young, jeong jin young



넥크라인과 소매 부분에 체크 패턴을 더한 클래식 케이블 니트 40만원대 폴로 말프로렌.



카프 스킨 소재의 울머 테일 로퍼를 신는 1백70만원 말프로.

ASHLEIGH 조지민 에르메네제노



블루 에어로그림 카우라이드 가죽으로 제작한 뉴 매스저 백. 28X24cm, 3백35만원 루이 비통.

- 생로랑 02-525-2250
- 프레드 02-514-3721
- 젠틀 몬스터 1600-2126
- 디올 맨 02-3480-0104
- 토스 02-3438-6002
- 에르메네제노 02-518-0285
- 폴로 말프로렌 02-6004-0220
- 에르메스 02-544-7722
- 까르띠에 1566-7277
- 구찌 02-3452-1921
- 코치 080-888-1941
- 피아제 02-3479-1802
- 벨루티 02-547-1895
- 루이 비통 02-3432-1854

JUDE LAW & RAFF LAW



The Shilla Seoul B1, Galleria Luxury Hall East 4F
Shinsegae Main 6F, Hyundai Main 4F,
Shinsegae Gangnam 6F

Prioni



*A NEW
JOURNEY*

Samsonite



미디어아트, 울산시립미술관

‘미래형 미술관’을 꿈꾼다

“뮤지엄이 허락하는 가장 큰 보람은 관람객이 단 하나의 대상과 친교를 맺는 데서 온다.” <끌리는 박물관>이라는 책을 쓴 매기 퍼저슨은 미술관의 미덕에 대해 이렇게 얘기했다. 하나의 거대한 상품으로 전락해버렸다는 편잔을 듣는 21세기의 미술관이지만 여전히 현재의 나와 세상에 대해, 그리고 미래를 열어가 통찰을 얻을 수 있는 곳이기도 하다. 특히 아무리 휘황찬란한 이미지로 포장해도 인터넷으로는 결코 해소할 수 없는 강렬한 물리적 경험은 팬데믹 시대에 더욱 소중하고 간절해진다. 지난 1월 초, 울산 북정동에 새롭게 들어선 울산시립미술관은 관람객들에게 보다 가까이 다가가면서 참여적 경험을 선사하는 미디어아트 플랫폼을 지향한다. 일단 인간과 기술의 공존, 산업과 예술의 조화를 모색하는 전시 콘텐츠는 울산이라는 도시의 정체성과 잘 어울린다. 미술관만이 아니라 바닷가 전시장에 걸쳐 5개의 개관전이 펼쳐지고 있는 현장에 다녀왔다.

“결국 미술관은 과거보다 미래와 더 관계가 있다. 보존은 과거를 보존하기보다 공적 공간의 미래, 예술의 미래, 미래 자체를 창조하는 것이다.” 히토 슈타이얼(Hito Steyerl)

모든 것이 상품화되는 소비사회에서 미술관이라는 존재의 가치는 무엇일까? 거의 지적 유희만 남아버린 ‘예술의 죽음’을 얘기하는 비평가들은 미술관이나 박물관 역시 소비의 물결에 휩쓸려 현대미술이라는 값비싼 장식품을 보관하고, 내키는 대로 보여주는 거대한 수장고에 다름 아니라는 논리로 쏘아붙이기도 한다. 하지만 팬데믹 시대에 접어들면서 공간에 대한 대중의 갈망은 땅 터지기 직전의 풍선처럼 부풀어오른 듯하고, ‘퍼블릭 스페이스’로서의 미술관은 꽤 소중한 존재다. ‘집콕’에서 벗어나 건축의 오라를 느끼고 대상을 지긋이 바라볼 수 있는 탁 트인 문화 예술 공간을 선망하는 건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팬데믹 이전에 미술관은 각종 이벤트가 일어나고, 사람들이 모이는 장소로도 각광받고 있었지만, 거리 두기가 강력한 임시 규범이 된 지금은 관조하는 공간으로서의 효용이 압도적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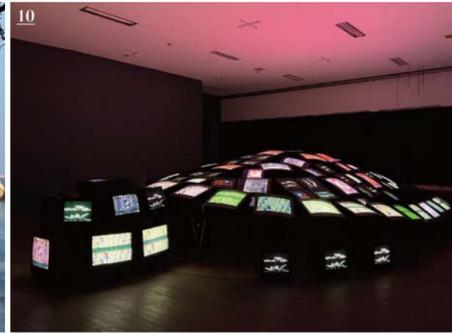


물론 그저 시원하게 숨 쉴 곳이 필요해 찾는 이들도 있었고, 참신한 볼거리를 원하는 이들도 있었지만, 인간의 위대한 창조물을 주시하면서 성찰에 빠지는 경험에 목마른 이들도 분명 있다. 저마다의 동기가 어떻든 간에 요즘 우리나라 곳곳의 미술관에 밀려드는 관람객 인파를 보면 그 같은 갈증의 크기가 느껴진다. 지난 1월 6일 울산 북정동에 새롭게 문을 연 울산시립미술관의 사례도 좋은 방증이 될 것 같다. 미디어아트 중심의 미래형 미술관을 표방하는 울산시립미술관은 개관 2주 만에 누적 관람객 수 2만 명을 돌파했고, 한 달 반 만에 6만 명 가까이 손님을 기록하고 있다(2월 20일 기준 5만 7천 명을 훌쩍 넘어섰다). 개관 효과라는 게 뒷받침되지만 연이오 넓게 보면 ‘부울경’ 권역을 포용할 수 있지만 1백2만 명의 울산시 인구 규모 자체만 감안하면 인상적인 수치다. 소득수준이 높은 산업도시인 만큼 문화적 여유는 있지만 콘텐츠와 인프라는 턱없이 부족해 ‘문화 예술 불모지’로 통하는 울산이라는 도시에 시기적절하게 등장한 선물인 셈이다.

#오감 만족 체험을 제안하는 3색(色) 개관전 북정동
울산 중구 북정동 원도심에 자리한 지하 3층, 지상 2층 규모의 시립미술관(연면적 1만2,770㎡). 첨단 기술과 산업에 힘입어 급속하게 성장한 이 도시에 문화적 자원이 부족하다는 사실이 ‘뉴스’가 아닌데도 신설 시립미술관에 대한 관심은, 적어도 미술계에서는 적잖이 불거졌다. 모든 게 디지털로 수렴되는 시대적 흐름을 반영하는 ‘미디어아트’ 중심의 특화 미술관을 내세웠기에 이목을 끌 만했다. 게다가 초대 수장을 맡은 서진석 울산시립미술관장이 대안공간 루프와 백남준아트센터를 거쳐며 내공을 쌓아온 인물이라는 점에서



도 기대를 모았다. 현재 개관을 맞이해 무려 5개의 전시가 동시에 펼쳐지고 있는데, 그중 셋은 북정동 본관을 무대로 한다. 일단 많은 이들의 시선을 잡아끌 만한 전시는 실감 미디어아트 체험 전용관(XR랩)에서 진행 중인 <블랙 앤드 라이트: 알도 탐벨리니>展. 백남준과 더불어 미디어아트의 신 기원을 연 이탈리아 작가 알도 탐벨리니(Aldo Tambellini)의 개인전이다. 미술가이자 시인이기도 했던 탐벨리니는 모든 것의 시작을 ‘블랙’으로, 에너지의 근원을 ‘라이트’로 간주했는데, 이번에 선보인 그의 유작 ‘우리는 새로운 시대의 원주민이다’(2020)에서는 ‘흑과 백’의 시적 조우를 음악과 영상, 시가 융합된 몽환적인 디지털 체험으로 선사한다. 바다를 포함한 전시장 사면이 온통 블랙과 화이트로 일렁거리는, 그야말로 ‘오감을 일깨우는 체험’을 할 수 있다. 어둠과 빛이 충돌하는 우주 공간에 와 있는 듯한 느낌이 드는데, 10여 분의 시간이 ‘순식간’ 정도로 몰입감 넘친다. 개관을 기념한 특별 기획전 <포스트 네이처: 친애하는 자연에게>는 다수의 글로벌 작가가 참여한 전시다. ‘포스트 네이처’라는 표현은 자연과 기술이 융합해 또 다른 혼종적 생태계를 만들지 않을까 하는 질문을 품고 있는데, 현대미술에 관심이 있다면 이름만 봐도 쟁쟁한 작가들이 눈에 띈다. 예술의 사회적 역할에 대해 날카로운 질문을 던지는 영향력 있는 미술가이자 저술가로 오는 4월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에서 국내 첫 개인전을 가지는 히토 슈타이얼(디지털 식물 영상 설치 작품을 비롯해 지난해 리움미술관 재개관전에서 소개되기도 했던 세실 B. 에판스, 윈스터 조카 프로젝트에서 파격적인 퍼포먼스로 화제를 모은 알레산드라 피리치, 백남준, 수리청, 카미유 앙로, 김아영 등 비엔날레 같은 국제 행사에서 한때 어우러진 만한 수준급 아티스트들의 다채로운 작품을 접할 수 있다. 이들이 다루는 작품의 내용이 흥미로운 물리적 오라에 비해 대중에게 다가가기 어려울 수도 있지만, ‘변화만이 유일한 확실성’이라는 이 시대에 한 번쯤 ‘체험’하고 진지하게 들여다볼 만한 장르의 예술임에는 틀림없다. 이밖에 어린이를 대상으로 한 기획전 <느려하는 고래, 잠수하는 별>도 마련돼 있다. 자연과 인공지능 환경이 어우러진 울산이라는 도시를 어린이들이 오감을 활용해 느껴보는 데 초점을 맞춘 전시다.



1 울 초 문물 연 울산시립미술관을 수놓은 개관전 중 하나인 <블랙 앤드 라이트: 알도 탐벨리니>展에서 선보인 영상 설치 작품. 알도 탐벨리니의 유작인 ‘우리는 새로운 시대의 원주민이다’(2020)가 상영된 전시장은 공공 미술관 최초로 상영된 실감 미디어아트 체험 전용관(XR랩)으로 실감형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알도 탐벨리니 <제노와 (주토포스) 공동 제작, 4월 10일까지. 2 울산 중구 북정동 원도심에 들어선 울산시립미술관 외관(연면적 1만2,770㎡, 지하 3층·지상 2층 규모). 3 히토 슈타이얼, ‘이것이 미래다’(2019), 가변 설치, 16분. ‘디지털 식물’을 통해 알고리즘이 인도하는 대로 살아가는 디지털 자본주의 경계에 대해 고요하는 작품. 4월 10일까지 열리는 특별 기획전 <포스트 네이처: 친애하는 자연에게> 전시 작품. 4 <파치에 바셋이 지니는 혼란 상태>를 보여주는 수리청의 작품. 다음으로 가는 정원(2021~22)과 TV에서 발현되는 빛으로 광합성하는 식물과 광합성에서 생성되는 산소가 TV 전자 주사 장치의 에너지를 사용하는 백남준의 설치 작품 <키오의 숲, 숲의 개시(1992~94)>가 모두 눈에 들어온다. 5 수리청, UKI, 바이러스 정령(2018), 3채널 비디오. 6 김아영, 21세기 이후에 대한 외국인 시선을 예견하는 다공성 계곡 2: 트릭스터 플랫폼(2019), 2채널 비디오, 23분 4초. 7 세실 B. 에판스, 푸저어(메이신)(2021~22), 9채널 비디오. 기후변화로 황폐화된 도에서 삼과 죽음을 가로지르는 서사들 바탕으로 한 영상 설치로 고전적 배경 <가래>에서 영감을 받았다. 8 울산시립미술관의 소장품 전시 <친한 날들>이 열리는 대왕암공원 내 전시장(옛 폐교)이 현 울산교육연구원 건물 외관. 9 <친한 날들>과 울산 지역 신진 작가 발굴전 <대면 내면 2021>이 열리는 대왕암공원의 동해 바다 풍경. 4월 10일까지. 10 울산시립미술관 소장품 1호 백남준의 1993년 작품 <거북>. 1백66대의 TV 모니터가 동원됐다. 11 소장품 전시에 선보인 인도 작가 날라니 말라니의 작품 <내 목소리가 들리니?>(2018~20). 아이패드로 그린 88장의 그림이 9개의 채널로 송출되어 시시각각적인 변화를 준다. 12 한, 바리케이트 오브젝트(2017), 6채널 비디오 영상, 컬러, 11분. ※1, 2 이미지 제공: 울산시립미술관 + 3~12 이미지 Photo by SY Ko

#바닷가를 무대로 삼은 소장품展 + 신진 작가展 대왕암공원

울산에서 미술관 투어를 시도해 볼 의사가 있다면, 바닷가 해돋이 명소로 잘 알려진 대왕암공원을 ‘동선에 넣어야 한다’는 점을 기억하길 바란다. 물론 미술관 본관의 알차 콘텐츠를 놓쳐서는 안 되겠지만 수려한 바다 풍경을 배경으로 한 대왕암공원 내 폐교 건물에서 이름다운 ‘강의’ 전시가 펼쳐지고 있기 때문이다. 지금은 울산교 육연수원으로 쓰이는 폐교(옛 방어진중학교)의 교사동과 강당을 활용했다. 학교를 무대로 전시를 꾸리는 건 미술 기획자들의 꿈이라고 했는가. 교실 공간마다 한 작가의 작품이 담겨 있는 전시 공간, 그리고 청문 너머로는 해변이 보이는 전망의 조화는 그 꿈을 심분 이해하게 만들어준다. 일단 백남준의 1993년 작품인 ‘거북’은 울산시립미술관 1호 소장품으로, 1백66대의 TV 모니터를 거북 형상으로 만든 대형 비디오 조각 작품(6 x 10 x 1.5m)이다. 암막 커튼을 드리워 빛을 완전히 차단한 전시장에 알드려 있는 커다란 전자 거북을 ‘모시기에’ 파도 일렁이는 바닷가의 단독 공간이야말로 더할 나위 없는 자리가 아닐까 싶다. 깜깜한 곳이지만 거북의 머리는 분명 바다를 향하고 있다. 이렇듯 소장품 1호다운 무게감을 유감없이 발휘하는 백남준의 거북을 위시해 대왕암 폐교에서는 29팀의 작가를 소개하는 소장품 전시 <친한 날들>이 오는 4월 10일까지 계속된다. 사실 소장품의 면면은 이 특별한 공간이 아니더라도 흥미롭다. 미디어아트의 또 다른 거장 피터 바이벨을 비롯해 이블, 문경원 & 전주호, 김은철, 전소정 등 한국의 스타 작가들, 송동(중국), 날라니 말라니(인도), 와이 샤키(이집트), 아피차퐁 워라세타쿰(태국) 등 기하 미니 비엔날레를 방불케 하는 각국의 경쟁력 있는 작가들의 작품이 함께한다. 룬튼, 권하은 작가의 경우에는 가상현실(VR) 체험을 할 수 있는 작품을 선보이는데, 짝조름한 바다 내용이 묻어 있는 듯한 공간에서 미

래의 세상을 거니는 듯 이색적인 경험의 묘미가 남다르다. 이 밖에 울산을 대표하는 시립미술관이라는 본분에 맞게 지역적 신진 작가 발굴전도 함께 열고 있다. 울산에 연고가 있는 청년 작가 24명의 작품을 소개하는 <대면 내면 2021>展이다. 글로벌 무대를 수놓고 있는 세계적인 작가와 잠재력이 무궁무진한 신진 작가의 조합을 보노라면 대왕암 폐교가 ‘영구적인 전시장’으로 남기를 바라는 마음이 절로 든다. 베니스 같은 비엔날레든 요코하마 같은 트리엔날레든 국제적인 미술 행사가 열리는 예술의 안식처로서 말이다. 빼어난 풍광을 배경으로 자연과 기술, 그리고 예술이 창의적인 접점을 이루는 세계적인 미디어아트의 요람으로 거듭날 만한 환경을 이미 갖추고 있지 않은가. **글 고상현**



모두가 들떠 있거나 여전히 혼란에 휩싸여 있어도 시간은 차분히 흐르고, 봄이라는 계절도 기지개를 켜다. 이른 봄이면 막을 내릴 거장의 전시를 소개한다. 팝아트의 구루로 그동안 국내에서 '단독전'으로 접할 기회가 흔치 않았던 로이 리히텐슈타인 전시, 그리고 자신만의 사진 미학으로 탁월한 명성을 자랑하는 네덜란드 작가 어윈 올라프의 대규모 회고전이다. 매체도 스타일도 다르지만 절로 '집중하게 만드는 힘을 지닌 작가들이다. 병마와 싸우면서도 굳건히 작업을 이어나간 것으로 알려진 어윈 올라프의 경우에는 여전히 '현존하는 작가로 소개되면서 최신작까지 감상할 수 있다는 점이 반갑다.



#〈어윈 올라프: 완전한 순간-불완전한 세계〉수원시립미술관

"나는 작품의 심리적 측면에서 관람객을 매혹하는 걸 좋아한다." 독특한 사진 미학을 선사하는 네덜란드 작가 어윈 올라프(Erwin Olaf)는 이런 얘기를 할 자질이 분명히 있다. 특히 대개 무표정하게 등장하는 그의 초상 작품은 유연한 눈길을 주게 되면 자기도 모르게 계속 고정하게 만드는 힘을 지녔다. 사진에 관해 많은 글을 남긴 미술비평가 존 버거는 버거의 예술인 회화와 달리, 형태 사이의 관계를 보여주는 '구도는 사진의 영역에 깊이 들어오기 힘들다고 했는데, 어윈 올라프의 사진은 꽤 회화적인 면모가 있다. 촬영의 피사체인 인물부터 스튜디오 배경에 이르기까지 판을 짜고 세세하게 연출하는 '감독' 같은 그의 방식 때문이기도 할 것이다. 언뜻 그림 같지만 그저 장적인 회화의 느낌은 아니다. 기만히 응시하고 있다면 화면에서 튀어나와 이상적인 행동을 취할 듯한 느낌을 줄 만큼 인간의 극적인 감정을 서사적으로 연출했다. 일족적발의 상황 속 교묘한 긴장감이 어려 있는 영화의 한 장면처럼. "관객이 여기에 걸려들어 그 매력에 빠져들면, 그때 작품의 진짜 메시지로 그들을 단번에 사로잡아버리는 것이다." 작가의 말처럼 절로 눈길을 잡아 끄는 인물들의 순간과 상황을 포착한 매혹적인 이미지는 그가 자주 다루는 인간 존재의 연약함이라는 주제 의식을 향하고 있다. 수원시립미술관에서 진행 중인 어윈 올라프 전시는 40여 년간의 작품 활동을 망라하는 대규모 전시다. 작가에게 영감을 줬던 켈브라트 등 거장들의 회화와 연결시킨 네덜란드 국립미술관 레이크스 뮤지엄의 2019년 전시 〈12인의 거장과 어윈 올라프〉를 소개한 특별 색션을 비롯해 작가 본인이 피사체로 등장해 코로나19 사태로 혼란에 빠진 동시대인의 심경을 표현한 사진, 그리고 영상과 설치 작품까지 '발품'이 아깝지 않은 구성을 갖췄다.

전시명 〈어윈 올라프: 완전한 순간-불완전한 세계〉 전시 기간 2022년 3월 20일까지 홈페이지 <http://suma.suwon.g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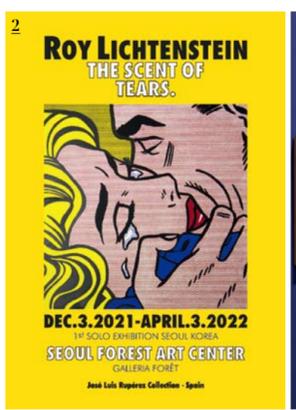
1 전시 색션 3부 '고전: 현대적 초상의 모습, 고전 회화와 시가 지닌 운율과 심상이 빛어내는 순간을 이미지로 담았다고. 2 베를린 초상화 1(2012), 크로모제너 프린트, 120 x 90cm. © Erwin Olaf 3 자판기 거짓말이 없으면 심을 정도로 비현실적인 현대의 상황을 그린 제목이 인상적인 민우철 오션 9시 45분(2020), 크로모제너 프린트, 60 x 90cm. © Erwin Olaf 4 전시 1부 '윤간: 서사적 연출에 선보인 작품(2012), 열쇠 구멍을 통해 들여다보면 영상 작품이 나온다. 이르면 미술관 소장(Collection Arnhem Museum)

출처: 수원시립미술관 제공

#〈로이 리히텐슈타인展 - 눈물의 향기〉서울숲아트센터

만화, 광고에서 차용한 패러디 이미지, 일상적 사물을 주 소재로 삼았던 로이 리히텐슈타인(Roy Lichtenstein, 1923~1997)은 앤디 워홀과 더불어 가장 친숙한 팝아트의 대가로 손꼽힌다. 고유한 화풍 같은 '고급' 예술과 대중적인 저급 예술이라는 이분법적 경계를 타파한 팝아트는 처음에는 의상과 비아냥을 많이 겪었다. 예컨대 리히텐슈타인이 1962년 당대 최고의 갤러리인 뉴욕의 레오 카스텔리 갤러리에서 전시했을 때 '진부하다'는 비난을 받았고, 1964년 잡지 〈라이프〉는 '그는 미국 최악의 미술가인가?'라는 제하의 글을 실기도 했다(사실 내용 자체는 우호적이었는데, 이는 카스텔리의 영향력 덕분이라는 해석도 있다). 서울 상수동의 서울숲아트센터에서 진행 중인 〈로이 리히텐슈타인展 - 눈물의 향기〉에서도 〈라이프〉의 원본을 볼 수 있는데, 바로 옆에 리히텐슈타인이 표지 일러스트를 장식한 1974년 〈뉴욕타임스 매거진〉이 놓여 있어 달리진 위상을 확인할 수 있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모더니즘의 대항마로 떠오른 팝아트는 이렇듯 판도를 뒤집으며 포스트모더니즘이 될 수 있는 사대의 문을 열었다. 대중문화를 미술에 끌어들이는 영리함을 발휘한 팝아트 작가들의 세계를 제대로 들여다보면 그다지 단순하지 않다. 리히텐슈타인만 해도 작업 방식을 보면, 그저 만화를 복사한 게 아니라 모티브들을 스케치한 다음 프로토타입을 영사해 연필로 베끼고, 스타일러스 원색, 윤곽선 등을 채워 넣는 복잡한 과정을 거치는 '회화'를 기반으로 했다. 그의 작품에 자주 등장하는 벤데이 점들조차 직접 만들어낸 것이다. 미술평론가 헬 포스터는 리히텐슈타인의 점들이 '수제 레디메이드'라는 팝아트의 역설을 집약한 걸작이라고 설명한다. 이번 전시는 스페인아트 칼렉터 호세 루이스 루페레스의 소장품을 모은 순회전으로 오리지널 캔버스 작품의 부재는 아쉽지만 작가의 예술 세계에 대한 이해를 도울 다양한 작품을 선보이고 있다. 또 해외 전시 개최자의 문화에 맞춰 늘 포스터를 제작했던 작가의 방식을 기념해 서울 전시용 '한지 에디션 포스터'를 내놓았다(3백 점 한정판 판매). 글 **고성연**

전시명 〈로이 리히텐슈타인展 - 눈물의 향기〉 전시 기간 2022년 4월 3일까지 문의 02-3446-9542



1, 3, 4 오는 4월 3일까지 서울 상수동에 마련된 서울숲아트센터(관화갤러리포레)에서 열리는 〈로이 리히텐슈타인展 - 눈물의 향기〉에서는 리히텐슈타인의 다양한 대표작뿐만, 초기 흑백 포스터 작업, 잡지 표지, 브랜드들과 협업한 굿즈 등 1백30여 점의 작품을 접할 수 있다. 리히텐슈타인의 스타일로 꾸민 '빈도' 있다. Photo by SY Ko 2 〈로이 리히텐슈타인展 - 눈물의 향기〉 전시 포스터.



하중현 개인전
a journey beyond limits



단색화 거장 하중현(1935~)의 60년 화업을 관통하는 작업 세계를 접할 수 있는 개인전이 국제갤러리 서울점에서 지난 2월 15일 막을 올렸다. 오늘날의 하중현을 알린 작가의 시그니처와 같은 기존 '접합(Conjunction)' 연작과 여기서 비롯된 다채색의 '접합' 연작, 그리고 최근 부쩍 매진하고 있는 '이후 접합(Post-Conjunction)' 연작 등 39점을 전관(K1, K2, K3)에 걸쳐 선보이고 있다. 올해 베니스 비엔날레 기간에 맞춰 현지에서 개최될 예정인 그의 개인전에 앞서 열리는 작은 회고전 같은 전시지만, 코로나19로 얼룩진 시기에 작업한 신작까지 공개해 구순을 앞둔 노장의 예술 여정이 여전히 활기 있는 '현재진행형'임을 보여준다. 오는 3월 13일까지.

이 없을 것'이라는 어떤 문필가의 말을 흔쾌히 수긍하게 된다. 지난 2월 15일 국제갤러리 서울점에서 막을 연 하중현 개인전은 작가가 60년 화업을 거치며 일궈낸 의미 있는 변화의 여정을 보여주는 작업 세계의 축소판 같은 전시다.

삶이 이어지는 한, 도전도 계속된다

"내 나이까지 붓을 드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국제갤러리 전시 개막일, 기자 간담회에 모습을 드러낸 노백택의 얼굴에는 웃음기가 감돈다. 2019년 국제갤러리 부산점에서 소규모 개인전이 열리기는 했지만 서울 소격동 본점에서는 7년 만의 전시다. 전시장을 가득 메운 취재진을 보고는 반가움을 아낌없이 내비친 그는 "평생 그림을 쉬지 못했다"면서도 아직까지 작업할 수 있어 행복하다고 덧붙인다. 그리고 세월이 무색하게도, 약 2년간 팬데믹 사태가 안겨준 고독의 시간을 예술과의 씨름으로 보냈음을 말해주는 신작까지 들고 나왔다. 하중현은 하얀 캔버스가 아니라 올 굵고 구멍 송송 뚫린 마포를 사용해 독특한 제작 방식으로 작업하는 작가다. 마포 뒷면에 물감을 두껍게 바르고 뒤에서 천 앞면으로 밀어 넣는 '배압법'은 그만의 독창적인 기법으로, 한국전쟁

1 지난 2월 15일 국제갤러리 서울점에서 개막한 하중현 개인전 (Ha Chong-Hyun) 1관 설치 모습. 2015년 이후 7년 만에 국제갤러리 서울점에서 열리는 하중현 개인전은 K1, K2, K3 전관에 걸쳐 펼쳐지고 있다. 오는 3월 13일까지. 2 국제갤러리 개인전을 위한 기자 간담회에 참석한 하중현 작가의 모습. Photo by SY Ko 3 국제갤러리 2관(K2) 설치 모습. 이른 살을 앞둔 나이에도 '집합'과 '이후 접합' 신작을 선보이는 등 창작에 대한 열정을 여전히 내뿜고 있다. 4 주로 기존 '접합' 연작을 전시하는 국제갤러리 3관(K3) 설치 모습. 이번 하중현 개인전은 베니스 비엔날레 티토(Tito) 개인전에 앞서 펼쳐지는 미니 회고전 같은 느낌이다. 베니스는 잘 알려져 있듯 2015년 한국의 단색화 거장들을 단색화(Dansae-hwa)라 불리는 이름으로 국제적으로 알린 특별전이 열린 뜻깊은 장소. 올해 하중현의 베니스 회고전은 작가의 이력에 있어서도, 단색화의 한 주수를 증명한다는 차원에서도 또 하나의 의미 있는 획을 긋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1, 3, 4 이미지 제공: 국제갤러리



simple elegance

모던한 디자인과 다이아몬드의 우아한 매력으로 시선을 사로잡는 앵글. photographed by park jae yong



(위부터 차례대로) **까르띠에 러브 브레이슬릿** 독특한 스크루 모티브로 사랑에 대한 연결성과 약속의 의미를 상징하는 까르띠에 시그니처 브레이슬릿. 18K 화이트 골드에 총 27캐럿 브릴리언트 컷 다이아몬드 2백47개를 세팅해 화려함을 더했다. 가격 미정. 문의 1566-7277

타파니 T1 화이트 하프 다이아몬드 한자도 앵글 아 이코닉한 T 모티브에서 영감을 받은 앵글로 모던한 디자인 덕분에 아디에나 착용 가능하며, 라운드 브릴리언트 다이아몬드를 하프 세팅해 우아한 매력을 풍긴다. 가격 미정. 문의 02-6250-8620

불가리 세르펜티 브레이슬릿 라지 풍요, 지혜, 불멸과 장수를 상징하는 뱀에서 영감을 받은 불가리 대표 칼렉션의 앵글. 뱀에 대한 상세한 표현과 다이아몬드의 영롱함이 어우러져 시선을 사로잡기에 충분하다. 3천2백만원. 문의 02-2056-0171

다이아나 타일리스 클리시코 브레이슬릿 구조적인 느낌의 세련미를 완성하는 에메랄드 컷 다이아몬드로 밴드 전체를 세팅해 반짝임과 우아함을 극대화했다. 9천3백만원. 문의 02-515-1924

파이에 포제션 체인 브레이슬릿 브랜드 헤리티지인 화려하는 모티브를 담아 경쾌하고 모던한 룩을 연출하는 브레이슬릿. 18K 화이트 골드에 56캐럿 브릴리언트 컷 다이아몬드 총 0.49캐럿을 세팅해 일정한 강렬한 존재감을 지닌다. 8백35만원. 문의 1668-1874

반클리프 아펠 베를리 다이아몬드 브레이슬릿 스톤 브랜드의 시그니처인 베를리 라인에 찬란하게 빛나는 라운드 다이아몬드로 장식한 앵글로 베를리 고유의 골드 비즈와 눈부신 조화를 이룬다. 2천3백만원. 문의 1668-1906

쇼메 비마이라브 브레이슬릿 별장에서 영감을 받은 육각형 모티브를 이어 완성한 브레이슬릿으로 13개의 브릴리언트 컷 다이아몬드 총 0.95캐럿을 하프 세팅해 모던한 우아함을 완성한다. 1천만원대. 문의 02-2039-3854 에디터 **상정민**

▲ 세련미의 우아한 정

High Time

아름디옴뿐 아니라 하이엔드 기술력까지 갖추어 여성들의 욕망을 완벽하게 충족시킬 하이 컴플리케이션 워치. photographed by park jae yong

(위부터 차례대로) **브뤼게 플래시 그랜드 컴플리케이션 3357** 여성 워치에서 쉽게 볼 수 없는 투르비옹을 장착한 하이 컴플리케이션의 장미제. 지름 35mm 18K 화이트 골드 케이스에 브뤼게의 상징인 기묘세 장식을 적용한 살버드 골드 다이얼이 모던함과 우아함을 선사한다. 1억2천7백만원대. 문의 02-3438-6218

바세론 콘스탄틴 트레디시널 투르비옹 브랜드 최초 여성용 셀프 와인딩 투르비옹으로 지름 39mm의 핑크 골드 케이스에 다이아몬드 베젤 장식을 기어바퀴 화살표와 우아함을 선사한다. 페리페럴 로터와 3일간의 파워 리저브를 제공하는 초박형 무브먼트인 인하우스 칼리버 2160을 탑재했다. 2억1천만원대. 문의 1670-4606

까르띠에 발롱 블루 드 까르띠에 9시 방향에 문레이즈를 더한 오토매틱 와인딩 무브먼트를 장착한 워치로 지름 37mm의 블랙과 곡선형 스틸 케이스가 독특한 매력을 발산한다. 검 모양의 신형한 블루 컬러의 핸즈와 핑크 브레이슬릿이 세련된 감성을 부여한다. 1천102만원. 문의 1566-7277

파이에 라운다이트 스텔라 워치 핑크 골드에 1백26개의 브릴리언트 컷 다이아몬드 약 0.64캐럿을 세팅한 지름 39mm 원형 케이스에 유려한 타원형 다이얼을 매치해 독특한 아름다움을 지어낸다. 자체 제작 548P 기계식 셀프 와인딩 무브먼트와 세컨즈 및 문레이즈 인디케이터를 장착해 높은 기술력을 보여준다. 4천7백10만원. 문의 1668-1874

반클리프 아펠 칼리브 메메리크 워치 지름 32mm 로즈 골드 케이스, 베젤에 라운드 핑크 사파이어와 로즈 골드 회전 장, 라운드 버프를 무늬를 담은 화려한 워치로 특징이다. 다이얼에는 요정 발레리나와 무당벌레가 그려진 미니 어퍼 페넬로페를 생생하게 새겨 넣어 하나의 아트 피스 같은 놀라운 컬러와 기술력을 자랑한다. 가격 미정. 문의 1668-1906

볼랑탕 레이다비드 컴플리트 켈리더 다이아몬드로 화려하게 장식한 35mm 레드 골드 케이스에 자개 다이얼과 화이트 스트림을 매치해 순수하고 깨끗하면서도 우아한 감성을 담았다. 오토매틱 칼리버 6763 무브먼트로 작동하며 무려 1백 시간의 파워 리저브를 제공하고 컴플리트 켈리더와 문레이즈, 스톤 세컨즈 핸즈 등 다양한 기능을 갖추었다. 3천4백만원대. 문의 02-3467-8426

IWC 포르토키노 오토매틱 문레이즈 지름 37mm의 스틸 케이스에 스키프나사의 다크 브라운 엘리베이터 레더 스트랩을 매치해 모던하고 클래식한 감성을 부여한다. 시간적인 즐거움뿐 아니라 시간을 측정하기 전 달이 시간의 흐름을 표시해주는 문레이즈 디스플레이를 탑재했으며, 기계식 오토매틱 무브먼트 35800 칼리버로 작동한다. 1천48만원. 문의 1670-7363 에디터 **상정민**



Grand Circle

손목 위 품격, 남녀 모두의 위시 리스트! 이상적인 존재감을 지닌 41 & 42mm 워치 셀렉션. photographed by park jae yong



파이에 홀로 워치 파이에 매뉴팩처 1110P 오토매틱 기계식 무브먼트를 탑재했으며, 쿠션과 라운드 형태가 결합된 케이스가 홀로 스포츠에서 영감을 얻은 근엄하고 우아한 디자인 코드를 그려낸다. 지름 42mm 핑크 골드 케이스에 약 1.53캐럿에 달하는 56개의 브릴리언트 컷 다이아몬드를 세팅한 베젤을 둘러 화려함을 더했다. 투명한 사파이어 케이스 백을 통해 자체 제작 오토매틱 무브먼트의 아름다움을 감상할 수 있다. 5천3백원. 문의 1668-1874

블가리 옥토 로마 지름 41mm 로즈 골드 케이스와 다크 브라운 레커 다이얼, 브라운 앰피게이터 스트랩이 조화를 이루며 차분하고 클래식한 분위기를 풍긴다. 팔각 형태가 전하는 특유의 무장한 분위기는 유지하면서도 각을 미사하게 다듬어 편안한 착용감을 선사한다. 42시간의 파워 리저브와 최대 50m 방수 기능을 갖춘 BVL 191 솔로텔포 칼라바에서 동력을 얻는다. 2천2백원. 문의 02-2056-0170

파라데이 루미노르 두에 지름 42mm의 볼륨감 있는 쿠션형 케이스와 라이트 그린 앰피게이터 스트랩의 조화가 싱그러운 분위기를 전하는 모델. 시간당 2천원정액 회전동하며, 0.01초 단위까지 측정 가능해 시간의 정확성을 높인 칼라바 P.900으로 구동하며, 잉카 블록 충격 방지 장치를 장착해 보다 안정적인 움직임을 구사한다. 9시 방향에는 스톱 세컨드를, 3시 방향에는 날짜창을 올렸고, 수심 30m 생활 방수 기능을 실용성도 갖췄다. 7백원. 문의 02-6905-3394

브라이링 프라미어트 B01 크로노그래프 42 약 70시간의 파워 리저브와 30분 및 12시간 카운터 크로노그래프 기능을 갖춘 크로노미터 공식 인증 칼라바 B01로 구동한다. 블랙 플라멩에 화이트 색상으로 타카미터 눈금을 새기고 지름 42mm 화이트 다이얼과 대조를 이루는 블랙 스톱 세컨드를 3시와 9시 방향에 각각 장착한 깔끔한 디자인이 특징. 수심 약 100m 방수 기능을 지녔으며, 핸즈와 인덱스에는 아방물감인 슈퍼-루비노버를 입혀 어둠 속에서도 명쾌한 가독성을 발휘한다. 1천1백원. 문의 02-6905-3707

카르티에 발롱 블루 드 가르미에 워치 블루 7요세 다이얼 위 로마자 인덱스와 검 모양 핸즈, 3시 방향에 합성 스피넬 카보숑 1개를 세팅한 플루티드 크라운이 아이코닉한 디자인을 이루는 모델. 오토매틱 와우팅 매뉴팩처 무브먼트 1847 MC 칼라바로 구동하며, 수심 약 30m 방수 기능을 갖췄다. 스트랩을 손쉽게 교체할 수 있는 스틸 디플로이먼트 버클을 장착했으며, 지름 42mm 다이얼 위 3시 방향에 날짜창을 올려 7분에 충실한 실용성을 지녔다. 8백30만 원. 문의 1566-7277

로저드브 엑스칼리버 블루라이트 백작 정교한 스칼레톤 칼라바 RD820SO를 기본치로는 블루 사파이어 마이크로 구조가 독특한 효과를 이루며 역동적이고 강렬한 비주얼을 자랑한다. 지름 42mm 화이트 골드 케이스에는 화이트 다이얼을 두르고, 블루 앰피게이터 스트랩으로 화려하게 마무리했다. 60시간의 파워 리저브를 지원하는 모델로 전세계 88개 한정 출시한다. 1억3천3백50만원. 문의 02-3479-1403 에디션 **이주이**



Time Flows

기계식 시계 본연의 정밀함과 미학적 가치까지 겸비한 오메가 글로브마스터 에뉴얼 캘린더 컬렉션.

2015년 첫선을 보이며 이름을 알린 글로브마스터 컬렉션은 정확성과 우아한 디자인을 대변하는 상징이 되었다. 에뉴얼 캘린더 버전으로 한층 업그레이드한 컴플리케이션으로 돌아온 뉴 컬렉션에는 가장 트렌디하고 이상적이라 여겨지는 다이얼 지름 41mm를 적용했다. 라운드 케이스에 볼륨감이 느껴지는 플루티드 베젤이 특징인 이 워치는 오메가가 1952년 출시한 최초의 컨스텔레이션 시계의 클래식한 면모를 계승하며, 12각면의 파이팬 디테일을 더했다. 에뉴얼 캘린더 모델로서 중앙에 위치한 핸즈가 달이 바뀌는 즉시 현재의 달을 표시하고, 별도 작업 없이 1년에 단 한 번만 날짜를 조정하면 오차 없이 정확한 시간을 알려준다. 항자성 기술의 혁명으로 일컬어지는 코-액시얼 이스케이프먼트를 장착한 칼라바 오메가 8922 혹은 칼라바 8923에서 동력을 얻는다. 55시간의 파워 리저브를 지원하는 이 무브먼트는 크로노미터 공식 인증 기관 COSC의 엄격한 크로노미터 표준 테스트를 통과한 칼라바다. 사파이어 크리스탈을 적용한 투명 한 케이스 백을 통해 가장 정확하고 견고한 무브먼트의 움직임을 확인할 수 있으며, 로터에는 천문대 메달리언을 새겨 오메가의 정확도 관련 기록과 업적을 기념한다.

미학을 겸비한 수작
새롭게 선보이는 에뉴얼 캘린더 컬렉션은 매력적인 소재와 컬러 조합을 통해 다채로운 라인업을 구성한다. 가장 먼저 만날 수 있는 세 가지 라인업으로는 그린, 버건디, 골드가 있다.

먼저 그린 모델은 오메가 특유의 감각적인 톤의 조합을 여실히 느낄 수 있는 모델이다. 스테인리스 스틸 케이스로 선보이는 이 타임피스에는 태양광 패턴을 적용한 선레이 그린 다이얼에 각면 처리한 18K 화이트 골드 핸즈와 오메가 로고, 일자 인덱스를 올리고 컨스텔레이션 스타 장식을 입혀 상징성을 더했다. 여기에 다이얼 컬러와 톤온톤 배색을 이루는 그린 레더 스트랩을 매치해 우아하게 마무리했다. 크로노미터 공식 인증 기관인 COSC로부터 인증 받은 오메가 코-액시얼 마스터 크로노미터 에뉴얼 캘린더 칼라바 8922에서 동력을 얻으며, 무브먼트에 오메가의 정확성을 상징하는 천문대 메달리언을 새겨 넣는 섬세함까지 갖췄다. 버건디 컬러로 여성에게 더 매력적으로 어필할 버건디 버전은 그린 모델과 동일하게 스테인리스 스틸 케이스로 모던한 분위기를 이어가며, 오메가 특유의 레드 골드 합금인 18K 세드나™ 골드 소재를 베젤에 적용해 버건디 다이얼과 완벽한 조화를 이룬다. 크라운뿐 아니라 각면 처리한 핸즈, 오메가 로고, 일자 인덱스, 컨스텔레이션 스타를 포함해 태양광 패턴 버건디 다이얼 디테일에도 세드나™ 골드를 사용했다. 여기에 다이얼과 톤온톤 배색을 이루는 버건디 레더

스트랩을 매치해 관능적인 무드를 완성한다. 좀 더 이지적인 분위기를 추구하는 이라면 골드 모델을 눈여겨볼 것. 세드나™ 골드와 블랙 레더 스트랩을 조합해 도회적인 무드를 풍기는 이 모델은 케이스와 베젤, 다이얼 전체에 18K 세드나™ 골드를 적용해 우아한 분위기를 자아낸다. 중성적인 디자인으로 젠더리스 피스를 표방하며 다이얼 소재를 뜻하는 Au750을 새겨 오메가만의 합금인 세드나™ 골드를 입증하고, 오메가 로고와 컨스텔레이션 스타, 인덱스를 비롯한 다이얼 디테일 곳곳 역시 세드나™ 골드로 제작해 블랙과 조화를 이루며 오묘한 매력을 자아낸다. 특히 골드 플레이트 위 아워 및 미닛 핸즈와 인덱스에 오메가 최초로 블랙 오닉스를 사용해 특별함을 더했다. 오메가 코-액시얼 마스터 크로노미터 에뉴얼 캘린더 칼라바 8923으로 구동한다. 새롭게 출시된 모든 오메가 글로브마스터 에뉴얼 캘린더는 5년간의 품질보증이 적용되며, 마스터 크로노미터 인증 카드를 함께 제공해 제품에 대한 강한 자신감을 드러낸다. 문의 02-6905-3301 에디션 **이주이**



1 버건디, 스틸, 세드나™ 골드 조합으로 선보이는 모델 1천4백만원. 2 중성적인 분위기를 지니는 블랙과 세드나™ 골드 조합의 드레스 워치 4천1만원. 3 투명한 케이스 백을 통해 칼라바 8923의 움직임을 확인할 수 있다. 4 각각면 그린 톤으로 빛나던 모델 1천1만원.

2022 S/S Trend Report

온갖 놀라운 상상력과

과감한 시도로 패션 해방구라 불리던 Y2K 시대의 패션이 돌아왔다. 오랜 기간 이어진 팬데믹으로 패션에 대한 갈증을 느끼는 젠지(generation Z) 세대가 소셜 미디어를 통해 가장 가까운 과거이자 거침없고 화려했던 2000년대 패션을 소환하기 시작한 것. 그 시절 팝 스타인 브리트니 스피어스부터 크리스티나 아길레라, 한국의 이효리까지, 골반에 살짝 걸쳐 입는 로슬링 진부러 배꼽을 훤히 드러낸 크롭트 톱 등 2000년대 팝 스타들이 누리던 패션에 대한 자유를 만끽하게 해주는 10가지 패션 트렌드.

trend 1. Retro Denim

S/S 시즌 패션을 수 없는 소재는 바로 데님이다. 이번 시즌에는 특히 데님 팬츠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데님에도 역시 레트로 무드를 마음껏 녹여냈기 때문. 오버사이즈의 루스한 핏을 마음껏 뽐내는 실루엣부터 1990년대 후반의 헐렁한 배기 핏, 부츠 컷 데님까지. 남성 컬렉션에서는 그 시절 유행했던 일명 '찢정(찢어진 청바지)'과 화려한 프린팅, 소재의 믹스로 다양한 변형을 준 레트로 무드의 데님을 선보였다.

trend 2. Oversized Trousers

1990년대 말에서 2000년대 분위기를 가장 강력하게 담은 루스한 핏의 팬츠가 거의 모든 남녀 컬렉션을 휩쓸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걷는 것이 거주장스러운 정도로 오버사이즈여야 한다는 점이 포인트. 상의는 최대한 짧게 연출해야 하며 배꼽이 살짝 보이는 크롭트 기장이라면 더욱 좋다. 프라다 남성 컬렉션을 포함한 보테가 베네타, 드리스 반 노튼까지 이 트렌드에 합류했다. 스키니나 스트레이트 핏 팬츠는 잠시 넣어둘 것.

trend 3. Shirts Variation

이번 시즌 가장 독특한 점은 셔츠에 다양한 변주를 적용했다는 것이다. 미우미우 같은 여성 쇼에서도 S/S 컬렉션에서 보기 힘든 셔츠를 반 이상을 과감하게 도려내 색다른 무드를 연출했다. 일상복이나 워크 웨어로도 활용하기 좋은 남성 셔츠도 마찬가지. 평범한 화이트 셔츠에 과감한 프린팅을 넣은 디올 옴므나 셔츠의 깃을 변형하고 비비드한 컬러감을 준 발렌티노 남성 컬렉션의 셔츠가 눈길을 사로잡는다. 평범한 워크 웨어에 포인트를 줄 수 있는 좋은 팁이 될 듯.

trend 4. Pattern Play

과감한 패턴 플레이가 유독 돋보이는 이번 남성 컬렉션 쇼. 디올 옴므에서는 아티스트의 작업을 프린팅으로 녹여 아트 피스 같은 의상을 선보였으며, 페라가모에서는 호령이 무늬 패턴으로 화려하게 장식했다. 에르메스 남성 컬렉션 역시 니트에 독특한 프린팅을 넣어 포인트를 주었다. 갤러리에서나 볼 수 있을 법한 아트 작품과 화려한 프린팅으로 꽉 채운 의상이 돋보이며 남성들 역시 자신만의 개성을 표현하는 데 있어 선택의 폭이 넓어졌다. 팬데믹의 답답함을 과감한 패턴 플레이로 해소하려는 욕구와 자신의 개성을 마음껏 드러내고자 하는 젠지(generation Z) 세대의 표현력을 반영한다.



trend 5. Comfy Jacket

편안하고 루스한 실루엣을 연출하는 박시한 핏의 빅 재킷 트렌드가 지속되고 있다. 집에 있는 시간이 많아지고 재택근무가 일상화되면서 재킷 하나만 걸치면 이너가 무엇이든 멀리로 즐길 수 있는 워크레저 룩이 완성된다. 재킷의 실루엣 또한 2000년대 감성을 반영했다. 생 로랑에서는 빈티지 스킨에서 볼 수 있는 재킷 스타일을 그대로 재현했으며 사블 역시 어깨선을 완벽히 넘어서고 허벅지까지 떨어지는 오버사이즈 재킷을 선보였다. 각 잡힌 파워 숄더든 어깨를 타고 흘러내리는 오버 핏이든 빅 재킷 하나면 스타일리시한 룩이 완성된다.

trend 6. Low-rise

일명 '골반 바지'라 불리던 팬츠 스타일이 도래했다. 간신히 골반에 걸친 듯 연출하고 상의는 가능한 한 짧게 연출해 배의 상당 부분을 노출하는 것. 잘록한 허리 라인을 더욱 돋보이게 해준 브리트니 스피어스의 초창기 의상을 떠올리게 한다. 스타일리스트 로타 볼코바가 합류한 미우미우 컬렉션이 대표적이다. 가슴 밑까지 썩썩 잘라버린 과감한 크롭트 재킷과 셔츠에 치골이 드러나는 하의를 매치했다. 클래식하고 단정한 룩에 허리선을 훤히 드러낸 반전 매력으로 올 S/S 컬렉션에서 단연 이슈 메이커로 자리 잡았다.

trend 7. Go Cargo

2000년대를 휩쓴 Y2K의 대표 패션 아이템 카고 팬츠가 돌아왔다. 화물선이란 뜻의 카고는 원래 화물선 승무원들이 작업용으로 입던 바지로 양옆에 커다란 플랩이 달린 패치 포켓이 특징이다. 그 때문에 상의는 짧고 미니멀하게, 하의는 평평하고 크게 입는 이번 트렌드와 맞아떨어진 것. 최근 벨라 하디드와 카일리 제너 등 다양한 셀럽이 카고 팬츠에 매치한 룩을 선보였을 뿐 아니라 디올, 돌체앤가바나, 에르메스, 루이 비통까지 많은 쇼에서 브랜드의 아이덴티티를 담은 소재로 재해석한 카고 팬츠를 선보였다.

trend 8. Micro Mini

미니스커트는 1960~70년대 엄격한 사회 분위기에 맞서는 젊은이들의 반항 정신을 상징한다. 이와 같이 불안정한 시대에 대한 반항과 앞으로 나아가고자 하는 희망에 찬 도전 정신을 반영한 미니스커트 스타일이 다시 등장했다. 다리를 최대한 많이 드러내 더 과감한 스타일을 연출하는 것이 포인트. 테일로 드라마틱함을 더한 프라다부터 허벅지와 배를 과감하게 드러낸 미우미우와 같은 여성 컬렉션뿐 아니라 남성 컬렉션의 반바지 역시 무릎 위를 훨씬 벗어난 길이가 돋보인다.

trend 9. Cut Out

지난 시즌부터 꾸준히 언급되어온 컷아웃 트렌드가 이번 시즌 조금 더 과감하게 확장되었다. 원형으로 가슴 부위나 허벅지를 과감하게 자른 버버리부터 사선 컷팅으로 허리 라인을 강조한 샤넬과 돌체앤가바나까지, 다양한 컷아웃 디테일을 보는 재미가 있다. 남성 컬렉션 역시 예외는 아니다. 릭 오웬스와 버버리, 로에베 등 패턴 대신 컷아웃으로 포인트를 주어 평범한 룩에 재미를 더한다.

trend 10. Back in Athleisure

집이 짐(gym)이 되고 일과 레저의 경계가 무너진 지 오래. 이에 한동안 주춤했던 애슬레저 룩이 또 다른 느낌으로 재해석되어 등장하기 시작했다. 이전처럼 일상복으로 활용 가능한 운동복이라는 느낌보다는 방금 전까지 레슬링 경기장에 있다 바로 나온 듯한 스포츠 룩의 느낌을 더 과하게 담았다. 운동 시에나 착용하는 헤어밴드를 하고 빅 백에 요가 매트가 들어 있는 모습으로 지금 막 짐에서 나온 듯한 룩을 보여준 에트로 컬렉션이 대표적. 에디터 **상영민**



Spring romance

오랜 격리의 시간을 통과하며 겪은 현실과 디지털 생활의 융합을 표현한 올해의 컬러 배리케리. 이 신뜻한 라벤더 컬러 아이템을 통해 맞이하는 희망찬 새봄.
photographed by park jae young



(왼쪽부터 시계 방향으로) 100% 캐시미어로 이뤄진 블루베리 색바지 컬러의 스카프 59만원 배리, 문의 02-6905-3507, 광택 있는 아세테이트 소재에 화이트 컬러 로고로 포인트를 준 헤어밴드 가격 미정 셀린느, 문의 02-549-6631, 강렬한 푸르시아 컬러에 이탈리아 메시 소재 리본으로 장식해 화려함을 더한 에피콜리 100 펌프스 1백40만원 지미수, 문의 02-3479-1837, 부드럽고 폭신한 램 스킨 소재에 모노그램을 은은하게 앙무해 고급스러운 무드를 더한 쿠싱 PM 핸드백 4백만원대 루이 비통, 문의 02-3432-1854, 갈창은 형광 오렌지 컬러로, 발등은 배리케리 컬러로 장식해 강렬한 대비를 준 스웨이드 고틀 스킨 소재의 오한 슬라이드 80만원대 에르메스, 문의 02-542-6622, 이번 컬러 트렌드인 배리케리를 담은 100% 송아지가죽으로 제작한 시그니처 미니 카브 백 1백29만원 알렉산더 맥퀸, 문의 02-6905-3472, 라일락 컬러 송아지가죽으로 이뤄진 인티고나 스포츠 미니 백 2백25만원 지형시, 문의 02-3479-6137, 모한 무드를 풍기는 배리케리 컬러의 에-1멜 소재 클락 퓨전 컬렉션 브레이슬릿 1백10만원대 에르메스, 문의 02-542-6622 에디터 상영민

이슈: 배리케리

머리에 두건처럼 두른 후 작은 리본을 묶어 연출한 실크 트윙 소재 헤드 웨어, 자지 소재 재킷, 스트레치 저지 스웨트, 램 스킨 레드 맨츠, 린스틱 모양의 메탈 네크리스, 아이카르프, 드롭 이어링, 모두 가격 미정 샤넬.



클래식하고 마-평한 디자인으로 옷 스타일이나 컬러에 구애받지 않고 두루 활용하기 좋은 핸드-를 실크 트윙 소재에 가격 미정 샤넬, 싱글브레스트 재킷, 하이웨이스트 포켓 데님 맨츠 모두 가격 미정 생 로랑 바이 안토니 바카렐로, 코튼 브라들름 가격 미정 배리케리, 구조적인 폴리지 이어링 91만원 질 샌더, 블랙 아이카르프 40만원대 에르메스.



Tie a Scarf

우아한 뉴트로 바이브를 완성하는 네 가지 스카프 연출법. photographed by park jae young

이슈: 배리케리

손목에 워치와 함께 레이어드하면 자유분방하고 세련미 넘치는 인상을 줄 수 있다. 에르메스 스트리플 머피앤 실크 스카프 60만원대, 체인 장식인 유아한 난투켓 워치 4백만원대 모두 에르메스, 머린 스타일 코튼 스웨터, 블랙식 코튼 리자드 데님 진 모두 가격 미정 셀린느.



시계 180-200-2770, chanel.com, 디올 02-3481-0104, 생 로랑 02-549-5741, 배리케리 02-700-8800, 질 샌더 02-3479-1837, 에르메스 02-542-6622, 알렉산더 맥퀸 02-6905-3472, 지형시 02-3479-6137, 에디터 상영민

이처럼에 장식해 소프트 주얼리로 활용한 프리 사이즈 미차 스카프 가격 미정 샤넬, 케이틀 코튼 니트 1백80만원, 스카프 1백40만원대, 체인 네크리스 1백20만원대, 잔두 이어링 50만원대, 네오비 피케 셔츠, 화이트 셔츠, 로고 장식 브로프 모두 가격 미정 마우미우, 스웨이 메탈 프레임 모라 02 이어 웨어 288만원 켈들몬스터, 에디터 이유미



폭스 퍼 소재의 깃털 디테일 스트라이프 코트 2천만원대, 실크 새틴 자카르 소재의 멀티컬러 스트라이프 블라우스 2백만원대, 스커트 스타일의 팬츠 4백만원대, F를 형상화한 모노그램과 후프 디테일의 핑크 아이링 가격 미정 모두 렌디.

(왼쪽) 블랙 임브로이더드 테일 코트, 화이트 나트 탱크 톱, 대담 롱스커트, 그린 컬러 부츠 모두 가격 미정 루이 비통.
(오른쪽) 블루 스카이 폴리아우 미디어 드레스 8백만원, 화이트 스프린트 러너 8만원 모두 알렉산더 맥퀸.

A FRESH START

간절함과 함께 희망을 품어보는 2022년 첫 시즌을 여는 뉴욕.
photographed by jung ji eun





옐로 컬러 코트, 실크 니트
소재의 크롭트 탑, 스커트,
커피 스킨 소재의 샌들
모두 가격 미정 **에르메스**.



(왼쪽) 프린트 자카드 재킷, 만달라
프린트 크롭트 티셔츠, 프린트 브라톱,
프린트 자카드 진 모두 가격 미정 **에르메스**.
(오른쪽) 화이트 실크 및 비즈 소재의
드레스 7백90만원, 록스터드 스트랩 샌들
2백26만원 모두 **발렌티노**.

화이트 비스코스 보디수트,
프린트 디테일 스커트, 패러지 컬러
골드로 마감 처리한 지르코니아
네크리스, 슬리밍 모두
가격 미정 **보태가 배너다.**



(왼쪽부터 차례대로) 프린트 집업 재킷, 텍스처드 쇼트 스커트, 오버 더 니 부츠 모두 가격 미정 **자황시**, 베이지 슬리브리스 트랜치코트, 트랜치코트 소매 장식의 보디수트,
베이지 토 링 디테일의 스틸레토 힐 모두 가격 미정 **바버리**, 체크 패턴의 U 록 재킷 3백81만원, 크로스 브라톱 가격 미정, 화이트 레이스 쇼츠 3백31만원, 화이트 부츠 가격 미정 모두 **자황시**,
브라운 레더 디테일의 드레스, 카프 스킨 소재의 샌들 모두 가격 미정 **에르메스**, 베이지 오프숄더 톱, 크롭트 톱, 스트랩 디테일의 레깅스, 베이지 토 링 디테일의 스틸레토 힐 모두 가격 미정 **바버리**.



(왼쪽) 코트 & 민스 파이퍼 소재의 베스트, 블로버, 쇼츠, 스트라스 소재의 네크리스 모두 가격 미정 **사넬**.
(오른쪽) 코트 트워드 소재의 재킷, 스커트 모두 가격 미정 **사넬**.

보타가 베네타 02-3438-7601
 지점시 02-546-2790
 에르메스 02-542-6622
 바버리 080-700-8800
 사넬 080-200-2700
 생 로랑 by 안토니 바카렐로 02-549-5741
 프라다 02-3218-5331
 썬디 02-514-0652
 루이 비통 02-3432-1854
 알렉산더 맥퀸 02-6905-3472
 에트로 02-3446-1369
 발렌티노 02-2051-4653



(왼쪽) 세븐로 소재의 더블 크로스 재킷, 안디고 대님 소재의 클래식 팬츠, 블랙 카프 스킨 소재의 플랫폼 멕시코 토니아 힐, 메탈 & 라커 소재의 멀티컬러 볼 네크리스, 메탈 소재의 오가닉 브레이슬릿, 스무스 브레이슬릿, 오이어 브레이슬릿, 레드 카프 스킨 소재의 글러브 모두 가격 미정 **생 로랑 by 안토니 바카렐로**.
(오른쪽) 그레이 니트 블로 블, 오렌지 스커트, 블랙 니트 소재의 쇼츠, 블랙 슬랑백 핏프스 모두 가격 미정 **프라다**.

헤어 박수정
 메이크업 아이영
 모델 Ela Fundora, Lea Fonseca,
 Arina Fokina, Angel Glaude,
 Amanda Neves
 스타일리스트 채한석

Urban Luxury

최상의 소재와 섬세한 장인 정신으로 빚어낸 본질적인 우아함.
자연스러운 품위와 세련된 라이프스타일을 추구하는 이들을
위한 브루넬로 쿠치넬리의 뉴 스프링 컬렉션!
photographed by park jae yong



(위부터) 올리버 피플스와 협업해 선보이는 나노
선글라스 2백만원대, 가죽 고유의 자연스러운 텍스처가
고급스러운 빈자갈 60만원, 가벼운 무게와 편안한 착용감을
보장하는 송이커가죽으로 배색한 코트 스니커즈 1백만원대,
부드럽고 기능적인 형태를 갖춘 스웨이드 볼캡 90만원대
모두 **브루넬로 쿠치넬리**, 문의 02-3448-2931

● sponsored by BRUNELLO CUCINELLI

(위부터 시계 방향으로) 상큼한 레몬 컬러가
기본 좋은 에-치를 전하는 시아링 슬라이드
1백만원대, 발췌감이 부드럽게 마감한 누백에서
심사하고 우아한 매력에 느껴지는 클러치 백
2백만원대, 싱그러운 대나무 그린 컬러를 입힌
시아링 플로퍼 1백만원대, 유니크한 디자인의 메탈
선글라스 80만원대, 같이 조절 가능한 슬더 스트랩과
넉넉한 수납공간으로 실용성을 높이고 특유의
모넬리 핏으로 상징성까지 더한 화이트 가죽
크로스 백 3백만원대 모두 **브루넬로 쿠치넬리**.
문의 02-3448-2931 에디터 이주이



Feel so Good

욕실의 품격을 한층
높이는 럭셔리 뷰티템.
photographed by park jae yong



(왼쪽부터 시계 방향으로) 필립스 9900 프레스티지 미드나잇 블루 센스Q 테크놀로지를 적용해 바쁜 하루간 누르던 A가 입지 중 칫솔의 압력, 움직임, 세정 범위 등을 초당 1백 번씩 감지하는 진동 칫솔. 추적된 양치 결과는 앱을 통해 상세하게 볼 수 있다. 55만 원. 문의 080-600-6600

오라베 by 라베르바 메그나피스트 볼륨 샴푸 모발을 풍성하게 유지하는 것은 물론 강력한 건조사상 및 모발 강화 효과를 발휘해 겨울철 얇은 모발로 인한 정전기나 영감을 방지해주는 샴푸. 250ml 5만9천 원. 문의 02-2056-1221

라부르케 씨 솔트 배스 메리골드/오렌지/라벤더 따뜻한 물이 가득 담긴 욕조에 풀어 사용하는 제품으로 반신욕을 하는 것만으로 피부를 깨끗이 세정하고 자연스러운 각질 제거를 도와주며 메리골드, 오렌지, 레몬 에센셜 오일이 진정 및 보습 효과를 준다. 450g 3만3천 원. 문의 1644-4490

이슬 코어인더 씨드 바디 클렌저 워터 스프레이 향이 독특한 매력을 더하는 보디 워시. 블랙베리와 코어인더 씨드, 파슬리 오일이 촉촉한 보습감을 남기며 피부를 부드럽고 깨끗하게 씻어준다. 500ml 5만3천 원. 문의 1800-1987

아스티에 드 빌라트 볼륨 오일 샴푸 후 7분 진정과 빠른 보습 향연을 위한 코롱으로 화이트 플라워, 일랑일랑 등 플로럴 노트에 로즈제리, 버질 등 아로마틱 노트를 더해 강렬함과 신선함을 동시에 선사한다. 50ml 15만2천 원. 문의 02-3446-4322

디티코 라 마들렌느 캔들 갖 구운 마들렌의 향기와 마른 셀 프루스트가 쓴 직물의 배경이 된 노르망디 지역에서 영감을 받은 향을 담았다. 따뜻하면서도 상큼한 레몬 향이 욕실을 상쾌하게 만든다. 220g 1만5천 원. 문의 02-3479-6049

복사방 이온드 2-IN-1 엑스플라워링 스킨 작은 이온드 감질을 함유해 샤워와 동시에 각질 케어를 도와주는 것은 물론 돌출된 돌기로 보디 마사지와 디톡스 효과까지 선사하는 멀티 스크럽 바누 125g 1만7천 원. 문의 02-2054-0500

클라랑스 톤크 바디 트리트먼트 오일 로즈메리, 제라늄, 민트로 이뤄진 에센셜 오일이 보디 피부에 탄력을 부여하

며, 하이글트 오일이 보습막을 형성해 피부를 촉촉하게 가꿔준다. 100ml 8만3천 원. 문의 080-542-9052

블리 1803 오이아 당테르 차양 은은한 애플 향이 잊혀지는 동안 부딪스릴지 않은 상쾌함을 선사하며 칼슘, 마그네슘 등을 함유해 양치 후에도 텅텅임 없이 깔끔하고 개운한 사용감을 준다. 75g 3만9천 원. 문의 1544-5114

샤넬 뷰티 수플라미지 코르 데 데콜레 노화의 상징인 목 주름 케어를 위한 보디 & 넥 크림으로 벨벳처럼 풍부하고 크리미한 재질이 바른 동안 부드러운 마사지를 가능하게 하며 빠르게 흡수되어 신뜻하고 가볍게 마무리된다. 150g 39만1천 원. 문의 080-332-200, www.chanel.com 에디터 **상정민**

Beautiful Technology

피부 컨디션이 떨어지는 환절기. 스페셜 케어보다 중요한 건 매일 루틴이다. 집에서 간편하게 지속적이고 효과적인 관리를 도와줄 뷰티 디바이스 하나로 피부 불균형을 효과적으로 바로잡을 것. 떨어진 탄력을 되살려 매끈하고 건강한 피부 관리를 도와줄 홈케어 뷰티 디바이스 실큰 페이스타이트 3.0이 그 해답이다. photographed by park jae yong



나만의 홈 에스테틱으로 매일매일 스페셜 케어

피부 관리의 핵심은 꾸준함이다. 어쩌다 한번 받는 스페셜한 관리도 좋지만 이 특별한 관리를 매일매일 집에서 간편하게 누릴 수 있다면 피부 관리에 보다 더 도움이 될 것. 특히 외출하기 조심스러운 요즘 같은 때, 집에서 간편하게 효과적인 스킨케어 효과를 볼 수 있는 홈케어 디바이스 하나 마련하는 것은 필수다. 환절기 시작되면 다양한 피부 고민이 생기기만 무엇보다 다들 가진 피부와 균일하지 않은 피부결이 가장 고민이 되기 마련. 이를 해결하는 방법 중 가장 핵심은 피부 조직의 탄력을 더욱 탄탄하게 만들어주는 것이다. 다양한 뷰티 디바이스 중 하루만 실큰 페이스타이트 3.0을 추천하는 이유. 실큰 페이스타이트 3.0은 병행용 인모드 기술을 적용한 고주파 마사지로 비아폴라 고주파 에너지를 콜라겐 생성, 피부 톤 개선에 도움을 주는 LED 레드라이트, 그리고 이 레드라이트를 피부 속 진피층까지 도달시키는 열에너지까지,

세 가지 기능을 동시에 사용해 피부 온도를 43°C까지 끌어올려 떨어진 피부 탄력을 효과적으로 회복시키고 무너진 페이스라인을 원래대로 되돌리는 데 도움을 준다. 그뿐 아니라 P&K 피부임상연구소의 인체 적용 시험 결과에서 목 피부 처짐 27.7. 44% 변화, 팔자 부위 볼륨 72.95% 변화를 보여 피부 탄력을 개선하는 데 효과적인 것이 입증되어 얼굴은 물론 목까지, 탄력이 떨어진 어느 부위에서나 사용할 수 있다. 손에 쏙 들어오는 크기와 화이트에 로즈 골드 라인이 들어간 고급스러운 디자인, 유·무선 사용이 가능한 편리함 역시 자꾸 손이 가게 하는 데 한몫한다. 다가오는 환절기에도 끄떡없는 균형 있는 피부, 매끈하고 탄력 넘치는 피부로 거듭나고 싶다면 실큰 페이스타이트 3.0으로 편리하고 꾸준하게 관리해보자. 하루하루 더 어린 피부로 만나볼 수 있을 것이다. 장기는 56만 원. 문의 080-246-1234 에디터 **상정민**

● sponsored by SILK'N

editor's Pick

환절기 피부 고민은 덜어주고, 싱그러운 에너지는 채워주는 이달의 뷰티템.
photographed by choi min young, jeong jin young

연속 유행기 시계 방향으로 **올립 립 올미아티 업모스트 스프레이** 한 달이 꽃이 같은 유려한 곡선형 케이스부터 마음에 들었다. 텍스처가 입술에 안착하는 순간 너무 부드럽게 발려 보였다. 별빛 제형으로 은은한 립 메이커업을 완성한다. 국내 최초로 생분해 플라스틱(PLA)을 사용했으며, 그것조차 리필이 가능하게 한 착한 브랜드라 더 마음에 든다. 3.5g 2인1천원. 문의 070-4104-8792_by 에디터 상영민

클레르보 보에 칸살리 N SPF 25 PA+++ 처음 바를 땀 피부다루던 느낌이 들어 피부에 알고 편안하게 밀착된다. 그 후엔 브랜드의 특별한 'thin fit layer' 포콜라 선행인 및 오일 EX(에 엑) 덕분에 원래 피부인 듯 매끄럽고 윤기 있게 표현된다. 총 여섯 가지 세트로 출시하는데, 얼굴이 하얀 편인 에디터는 칸살리 N1 아이보리 컬러가 적당했다. 5g 7천5천원. 문의 080-564-7700_by 에디터 상영민

오라진스 닥터 와이 메가 마쉬룸 트리트먼트 로션 10배 더 강력해진 버섯 분자 곰팡이 효소가 피부 표면의 보호 능력을 강화해준다. 그로 인해 피부 자극 완화 및 진정 효과도 발휘하는데, 공격적으로는 외부 자극으로 예민해진 피부를 개선해주는 효과가 있다. 동충하초, 차 버섯, 영지 버섯 등을 함유했으며 4가지 감 없는 항에 텍스처도 물처럼 가볍다. 200ml 4만2천원. 문의 02-3440-2783_by 에디터 장미윤

프리아나 로 자르네 드 프리아나 로즈 라벤드 프리아나 자원의 로즈 거든에서 영감을 얻은 향. 로즈와 라벤다가 어우러진 향긋한 플로럴 노트가 중심이 된다. 이어 지는 배아 톱카 빈의 싱그럽고 달콤한 향이 물음 부드럽게 감싸는 몽근한 느낌이다. 여가 때 조이처럼 대한 바이올렛 향의 향이 깊게 어우러져서 부드럽고 따뜻한 향기가 하루 종일 감돈다. 30ml 11만원. 문의 080-363-5454_by 에디터 이주이

에스타 퍼펙트 UV 스킨스킨 스카이어 일드 민감한 피부에 이 제품은 SPF 50+ PA++++로 강력한 자외선 차단 자수에 비해 자극이 적어서 만족스럽다. 스킨스킨이 성분은 함유하지만 거울에 크리움을 생략하고 세팅 후 이국향 발도 피부가 충분히 촉촉한 느낌. 미세 먼지 흡착 방지 기능이 갖춰져서나 올봄과 여름 초봄이 될 듯하다. 60ml 3만6천원. 문의 080-564-7700_by 에디터 상영민

에스티 로더 리 뉴트리브 알티미트 다이아몬드 트랜스피어비트 보타리안스 세럼 이 세럼의 핵심은 블랙 다이아몬드 트라를 추출물. 남사부 프랑스에서 수확하는 엑스트라 클러스 트라를 1만 시간 가다려 특별한 성분으로 탄생시킨다. 외부 오염과 노화, 그리고 스트레스로 축적해진 피부에 양과 같은 역할을 해, 피부 광채와 톤, 투명도와 탄력 변화, 모든 면에서 활력이다. 정용 30ml 36만5천원, 리필 30ml 31만원. 문의 02-6971-3212_by 에디터 장미윤

보아레 라 드말 데마지앙 최근 핫한 세미 스킨 메이크업에 맞춘 에디터. 아이 메이크업을 하면 따라오는 각종 깨진 클러지가. 이 제품은 17개 20개 등으로 포장되어 휴대가 간편할 뿐 아니라 부드럽고 도통한 매트 제형이 민감한 눈과 입가에 사용해도 자극이 없는 느낌. 로즈 유폴과 로즈힙 오일로 클러징한 후에도 촉촉한 보습감이 남는다. 17g 20만2천원. 문의 02-310-5025_by 에디터 상영민

허피스 바자 이쿠아 스킨 및 쿼션 피오네이션 비르는 순간 사원한 클링 효과로 피부 온도를 급격하게 낮춘다. 특히 밤에 랩-디드와 프랑산스 제형이 클러징, 유럽산 네 가지 지천 유래 오일이 함유되어 있다니 메이크업을 하는 동시에 스카이어 효과까지 누릴 수 있어 일석이조다. 마스크 때문에 메이크업하기 답답하면 포는 할 수 없었던 추천한다. 15g 5만2천원. 문의 02-575-3402_by 에디터 상영민

다올 포에버 스킨 글로우 24H 웨이 레디언트 피오네이션 24시간 동안 결정을 커버해 주고 투명한 광채 피부를 지속시킨다. 밀과 알기, 순도에도 쉽게 지워지지 않는 강력한 기능을 발휘하는데도 수분감이 풍부하다. 피부를 한 겹 감싼 느낌이 아니라 숨 쉴 수 있는 편안함이 느껴진다. 피부 톤에 맞는 14가지 컬러로 선택하며 SPF 20 이상 UVA 및 UVB로부터 피부를 보호해준다. 30ml 1만3천원. 문의 080-342-9500_by 에디터 장미윤

샤넬 스킨롤 워미에르 레가드 #557 에델라 브라를 장착한 젤 타입 아이샤도도 메이크업에 섀드론 줄기움을 부여한다. 촉촉하고 가벼운 텍스처가 눈가에 섬세한 광채를 부여한다. 진돗빛 색인 핑크 피치 컬러를 담았으며, 애플리케이터를 살릴 줄리아 이샤도처럼 눈가를 우뚝에 바르거나, 톱코트처럼 아이샤도를 비를 뒤 레아도 할 수 있다. 1ml 4만8천원. 문의 080-805-9638, chanel.com_by 에디터 이주이

포리 레스베라트롤-리프트 파인 나이트 크림 착하고 생기를 잃은 대척 없는 피부에 기적같이 찾아와준 아이템. 세안 후 등딱 바른 후 지고 일어나면, 숙면을 취한 듯 자렘스라고 건강한 윤기가 느껴진다. 파인본 등 피부에 유해한 성분을 배제한 것은 물론 100% 재흡수 가능한 용기에 담아낸 착한 제형! 50ml 7만원. 문의 02-6011-0212_by 에디터 이주이

데코레드 아이피앗 플루아리코르드 유스 칸트레이트 은은한 밤 향기가 부드럽게 발려 얼굴에 보호막을 씌워주는 듯한 느낌. 에디터는 수분 크림에 혼합해 얼굴 전체를 케어하고, 주름이 신경 쓰이는 부위에 덧발랐다. 주름은 아니라 이펙티브 효과적 이어서 피부 톤이 한층 밝아진 듯하다. 20g 12만3천원. 문의 080-568-3111_by 에디터 이주이

상하이 자보로 아이 리프렛 7인의 엄록우노와 7인 사수에서 영감을 얻은 따뜻한 안스 톤 네 가지 컬러를 담았다. 특히 베이스 매트 브라운 컬러는 내후할 메이크업을 즐기는 에디터의 취향을 저격한 최애 톤 시버 리프 코피 브라운 컬러도 눈가에 섬세한 윤광을 부여해 부담스럽지 않아 민심에 사용하던 은은한 데칼코 메이크업을 완성할 수 있다. 판매 수익금 일부는 기린 보존 재단 후원에 사용, 미들까지 따뜻한 에디터. 2g 1만2천원. 문의 070-4370-7511_by 에디터 이주이



SHOWROOM

JEWEL & WATCH

오메가 컨스텔레이션 29mm 모던한 컨스텔레이션 29mm 워치에 레드 컬러의 별뿔과 같이 내부를 투영해 반짝임을 더한 천연 아벤추린 스톤으로 제작한 다이얼을 장착해 차별화된 모델을 출시했다. 스틸워치 스텐틸 및 18K 세드나™ 골드도 이루어졌으며, 다이아몬드를 파베 세팅한 베젤과 6시 방향 날짜창을 갖추어 가독성을 더했다. 문의 02-310-1270

프레드 포스텔 XL 브레이슬릿 출시 포스텔 컬렉션에서 처음으로 선보이는 XL 사이즈 버클을 출시했다. 남성성이 스타일링하기 좋은 사이즈로 화이트 골드, 옐로 골드, 핑크 골드 소재의 버클과 스틸, 케이블 등으로 2가지 소재의 결합이 가능한 시그니처를 반영해 탁월한 호환성으로 개인의 취향을 담아 착용 가능하다. 문의 02-514-3721

카르띠에 파사드 카르띠에 워치 여성성을 강조한다 이걸 지를 30mm의 파사드 카르띠에를 새롭게 론칭한다. 스포티즘을 부각한 유나섹스 컬렉션으로 남성이 착용하기에도 손색이 없다. 18K 핑크 골드, 다이아몬드, 스틸 등 다양한 버전으로도 만날 수 있다. 문의 1566-7277

에르메스 워치 Arceau Tigre Royal 에르메스 카르띠에 로열에서 영감을 한 호랑이를 새긴 워치를 출시했다. 다이얼 지름 34mm 화이트 골드 케이스를 적용하고, 베젤에는 반짝이는 다이아몬드 60개를 세팅했으며, 매트한 핏 그레이 악어 가죽 스트랩으로 마무리한 이 워치는 24개 리미티드 에디션으로 만나볼 수 있다. 문의 02-542-6622



ROLEX



롤렉스 미션 블루 환경보호가 전 지구적 문제로 떠오르는 요즘, 롤렉스는 패시뷰어 플래닛 캠페인으로 해양 보호 활동에 동참하고 있다. 세계적인 해양자 살바이얼과 협력해 바다를 보호하고, 오염된 해안을 생태계를 복원하기 위해 꾸준한 연구 중이다. 이외에도 자연을 탐구하고 보호하고자 노력하는 기인/단체를 지속적으로 후원하며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앞서 실천해가고 있다. 문의 02-2112-1251



FASHION



몽클레르 테크니컬 시티 웨어 2022 S/S 컬렉션의 핵심 요소인 매트 블랙 라인은 중력을 거스르고자 하는 농구 특유의 본질에서 영감을 받았다. 스포츠와 패션을 한데 엮어 기능성과 스타일을 결합하고 농구 코트에서 가져온 모티브를 고급스럽게 해석해 고기능 의상을 일상에서도 웨어블하게 착용할 수 있다. 문의 080-311-0000

프라다 프라다 모드 음악, 식사, 대화와 함께 독특한 예술 경험을 제공하는 현대 문화에 중점을 둔 여행 소셜 클럽인 프라다 모드의 일곱 번째 버전이 로스앤젤레스의 장스 코헨에서 열렸다. 아티스트 미친 신스의 작품 '할랄라 월드'를 설치해 게스트들이 감상하고 최근 소식, 생각을 나눌 수 있도록 프라다 모드 공간에 몰입감을 더해준다. 문의 02-3218-5331

팬시.뉴티 소자점과 함께한 2022 캠페인 배우 소자점과 함께 한 첫 광고 캠페인을 공개했다. 'A New Journey'라는 테마로 자유로운 여행에 대한 그리움을 담아 인천공항에서 비즈니스, 여행 등 다양한 라이프스타일에 맞춘 신상품을 소개했다. 문의 02-2007-2943

팬디 안토니오 겐스 그래픽 백 이븐 2022 S/S 컬렉션 팬디는 아이코닉한 패턴 일러스트레이터 안토니오 로페즈의 작품에서 영감을 다량한 아트워크를 선보인다. 팬디의 아이코닉한 백에 메종 정인들이 다양한 소재를 정교하게 조각 내 섬세한 바느질로 완성해 클래식한 FF 패턴의 새로운 매력을 보여준다. 문의 02-514-0652

파비어나 필리피 2022 S/S 컬렉션 파비어나 필리피의 S/S 컬렉션은 자연의 편안함과 아름다움을 현대적 미학으로 재해석해 라이프스타일을 품격 있게 표현하는 스타일을 제안한다. 자연을 연상시키는 그린 컬러의 코튼 소재 폴오버 비스쿠스 리넨 소재의 스커트도 청량함을 더했다. 문의 02-6960-0843



에스티 로더 뷰티룸 매그놀리아 인텐스 EDP 꽃들이 피어오는 3월 에스티 로더에서 시프레 플로럴 계열의 향수를 출시했다. 만년 오일, 바이올렛 리프 애플루트, 카다멈 오일을 블렌드해 아침에 피어나는 목련의 향기를 연상시킨다. 하트 노트에서 아이리스, 장미, 그리고 오렌지 플라워 콧발라 내음을 풍부하게 즐길 수 있어 한발 먼저 봄기운을 만끽하기 좋다. 문의 02-6971-3212

스위스퍼펙션 맨 라인 3중 스위스퍼펙션에서 2년 가까이 이어지는 3월 에스티 로더에서 시프레 플로럴 계열의 향수를 출시했다. 끈적임 없이 피부에 빠르게 흡수되는 맨 라인 리치트리 크림, 수분 진정 효과를 주는 맨 스킨 프로텍션 로션, 그리고 마스크로 구성된다. 크림 제형의 맨 나이트 리치트리 마스크는 아이리스 꽃 뿌리에서 유래한 셀룰라 액티브 아이리시로 본연의 턴오버 시기를 케어해 생기를 더해주는 피부로 가꿔준다. 문의 1644-4490

BEAUTY

* 장미윤 (02) 6971-3212, 상영민 (02) 310-5025, 이주이 (02) 6011-0212, 복미영 (02) 6971-3212



RALPH LAUREN

NEW STORE OPENING
현대백화점 무역센터점 3층 TEL. 02 3467 6560